

## 한화진 환경부장관, 권기창 시장과 안동댐에서 가뭄 상황 점검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6일 안동을 방문해 권기창 안동시장, 김형동 국회의원과 함께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도 시찰했다.

환경부 장관의 현장 방문에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자원순환국장,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 본부장과 안동 지시장, 경북도청 환경산업지원국장, 경북그린에너지센터, GS건설 환경사업부도 함께 참석했다.

이날 오후 한 장관은 안동댐 취수탑과 여수로를 방문해 저수현황과 용수 수급상황,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철저한 가뭄 대응으로 국민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화재가 발생한 안동댐은 누리파크에 방문해 소각장 가동 중지 등에 따른 폐기물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소각장 화재에 따른 신속한 복구를 독려했다.

현재 안동댐 수위는 142m이며, '약한 가뭄' 단계이다. 시는 댐 저수율, 농·공·생활용수 수급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며 위기 상황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연관 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143억여 원의 사업

비를 투입해 농업용수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용·배수로, 양수장, 암반관정, 저수지 등의 수리시설 33개소를 정비하고 안동호 상류부에 위치한 농업용수 취수가 불가능한 와룡산야리 상사골 지구 일원에 추진 중인 안동 북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더욱 확장하고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추가적인 급수를 추진한다.

한편, 이 자리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은 김형동 국회의원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마무리를 한화진 장관에게 촉구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지난 수십년간 댐 건설로 인한 도시발전 저해 및 주민 희생을 감수해왔다"며, "수몰민은 물론 안동 주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3월 내에 마무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시 면적의 15.2%가 넘는 231.192km<sup>2</sup>에 달하는 과도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으로 안동시 발전의 맥이 끊겨 있다"라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 등 도시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을 터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윤석열 대통령, 한일 경제인들과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 논의

### 미래 첨단 신산업 분야 공급망·기술협력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17일 12시 일본 동경 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개최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 양국 정상은 어제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양국이 서로 협력하여 더 큰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내자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첨단·과학기술 협력, 디지털 전환 등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양국 정상에 합의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을 구체화하고, 양국 경제인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측에서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 김윤 한일 경제협회장, 4대그룹 회장, 전경련 회장단 등 12명의 경제인이, 일본측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등 11명의 경제인이 각각 참석했다.

한국 대통령은 이날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 방일 기간에 개최된 '한일 경제인간대화' 이후 14년 만이며, 전경련 등



세계에 따르면 4대그룹 회장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모두 함께 참석한 것도 약 20여 년만에 처음이다.

오늘 행사는 기념촬영, 양측 경제단체장 개회사, 모두말씀, 오찬,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오찬 중에는 한일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양국 경제인들의 발언과 환담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며, 한일 양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 공

동으로 협력·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제 전경련과 경단련이 함께 발표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토대로 미래 세대의 교류가 늘어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이 확대된다면 양국 관계가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찬중 양국 경제계의 발언이 있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최태원 SK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일본 측에서는 사사미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사토 야스히로 미즈호 파이낸셜그룹 특별고문, 야스나가 다츠오 미쓰이물산 회장 등이 미래 한일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을 계기로 새 장을 열어가 양국 경제계의 교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중단된 재무·산업통상자원·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 장관급 협력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고, 주요 협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광수/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 인구소멸문제 해결위해 11개 시장·군수와 머리 맞대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3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금년 제2회 충청북도 시장·군수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북도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충북을 건설하기 위해 '출산육아수당',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비전 및 추진전략', '도시농업농촌정책 프로젝트', '충북형 도시농부' 등 충북도 주요 현안에 대해 도와 시·군이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청북도는 민선8기 핵심 전략으로 더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5월부터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을 지원하여 새로 아이

를 가지는 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귀농·귀촌 활성화와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과 도·농간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이날, 김영환 지사는 "시장·군수들께서 출산육아수당 문제를 조금씩 양보 해주셔서 5월부터 시작될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인구소멸 시대에 충청북도의 명운이 걸려있는 출산문제, 귀농귀촌문제, 지역발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시장·군수들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조성 등 충북도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2023년 시·군정 추진에 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GS건설 컨소시엄 '고덕자이 센트로' 17일 건본주택 오픈

GS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도시에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고덕자이 센트로'를 17일 건본주택 오픈하며 본격적으로 분양에 돌입한다.

'고덕자이 센트로'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860-2번지에 지하 2층~지상 25층 7개동 총 569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전세 100%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다. 것이 특징이다.

청약 일정은 3월 27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화) 1순위, 29일

(수)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4월 4일(화)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5월 15일~18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고덕자이 센트로에는 평택도시공사 시행을 맡고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단지이다. 전체 가구 중 85%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고덕자이 센트로 일반분양 물량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평택시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공급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20% 공급, 그외 50%는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 물량이 배정될 예정이다.

고덕자이 센트로에는 전세대 4BAY 판상형 설계를 적용해 일조권과 채광,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계절별 의류 및 패션 소품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대형 드레스룸을 갖췄다. 트렌디하고 동선의 효율성이 높은 '디' 자형 주방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와이드 다이닝, 디럭스 키친, 알파룸으로 활용이 가능한 '침실4' 등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평면 특화 설계로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고덕자이 센트로에는 편리한 직주 근접 환경이 장점이다. 단지는 세

계 최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차량으로 통근이 편리한 입지적 장점을 갖췄으며, 첨단 복합 산업단지 조성이 중인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에도 출퇴근이 용이한 입지에 위치해 있다.

고덕자이 센트로에는 고덕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 주변으로 1호선 서정리역을 이용할 수 있고, SRT 평택지체역을 통해 수도권 및 전국 이동도 가능하다. 또한, 평택제천고속도로와 통하는 평택고덕IC

와 송탄IC도 이용할 수 있어 차량으로 서울은 물론 전국으로 이동 가능한 광역교통망이 구축돼 있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고덕자이 센트로에는 고덕신도시의 입지적 장점과 '자이'브랜드로 공급되는 만큼 높은 상징성을 가질 것"이라며, "다양한 특장점을 갖춘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에 공급됨에 따라 많은 수요자에게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 전국 청약 가능, 85% 특별공급...3월 27일(월) 특별공급, 28일(화) 1순위 청약
- ◆ 지하2층~지상25층, 7개동, 총 569가구, 전 가구 전용면적 84㎡ 단일평형구성
- ◆ 민간참여 공공분양아파트에 적용된 전세대 4BAY '자이(Xi)' 평면 특화 설계

3.17 GRAND OPEN  
1833-4050

### 경북도의회 윤승오 의원, 「경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경북도의회 윤승오 교육위원장은 제33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폭력사안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19년 8월 개정되고 2020년 3월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개정사항에 대하여 경북교육청이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이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반영하면서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가해 및 피해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종전 조례에 「제13조(교직원의 조치) 교직원 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지체없이”로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제3호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를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으로 개정했다.

윤근수기자



###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선진 재활용 폐기물 광학선별기 벤치마킹

경기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안돈의)가 3월 16일 안성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방문해 선진 재활용 폐기물 광학선별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에는 안돈의 위원장과 성훈창, 김찬심, 김진영 위원과 관계 공무원, 시흥도시공사 임직원 등이 함께 했으며 현장 관계자로부터 센터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재활용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직접 둘러봤다.

앞서 3월 9일 시흥시환경미화다운 현장 방문에 이어 실시된 이날 벤치마킹은 우리 시의 경우 컨베이어벨트 수선별 근로자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근로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수선별 단계를 줄여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선진 광학선별기 도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수적 확장보다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떤 선별기를 어느 위치에 설치해야 할지 등에 대해 깊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돈의 위원장은 “쓰레기 분리배출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됐다”며 “시흥시 실정에 맞는 자원순환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위원회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신우용기자

### 대구시 창업 보육 사업, 시의회가 챙겨 본다

- 경제환경위원회, 17일(금)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찾아 현안 청취
- C-랩 아웃사이드, 메이커스페이스 등 창업 지원 필요성 공감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태순)가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7일(금) 오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대구시 창업 지원 사업의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경환위의 이날 현장방문은 지난 2월 삼성전자의 C-랩 아웃사이드(C-Lab Outside) 출범으로 관심이 높아진 대구시의 창업 보육 시설과 지원사업들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창업기업과 창업지망생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현장을 찾은 경환위원들은 이재일 센터장으로부터 대구창조센터의 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같은 건물 안의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 대구센터를 방문,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5개 기업을 차례로 둘러보며 창업기업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어, 센터 내 053창업카페와 클러지캠퍼스를 살펴보고 청년 창업지망생들의 네트워킹이 이뤄지는 현장에서 직접 청년들을 격려하고, 벤치기업의 시제품 제작·테스트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에서는 실제 시제품 제작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했다.

경환위원들은 “대구시의 창업 보육 시설을 둘러보니 예상보다 훨씬 훌륭하다”,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모습을 보니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그간 C-Lab 사업을 이어오며 창업기업의 발굴과 보육, 지역 고용창출에 기여해 온 관계 공무원 등과 삼성전자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태순 경제환경위원장(달서구4)은 “창업허브시설과 지원사업들의 운영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보니, 지원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공감이 생긴다”면서, “대구시

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새겨들고 시의회의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C-Lab 사업은 대구시와 삼성전자의 협력을 통해 운영 중인 지역대표 창업기업 보육 프로그램이다. 2014년부터 시작해 창업기업의 양적 확대와 유망창업기업 성장을 중점 지원했으며, 올해부터는 삼성전자의 주도하에 추진되는 C-Lab 아웃사이드 대구에 더해 대구시에서는 별도의 C-Lab 운영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C-Lab 사업은 14기를 거치면서 유망 창업기업 186개사를 선발해 3,913억원의 투자유치, 매출 6,919억원, 고용 3,000여 명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냈다. 윤근수기자

### 구례군의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마을현장 참여

연구대상 마을주민과 함께 의견 교환



구례군의의회는 3월 17일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연구대상 마을현장에서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구례군의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구례생활문화사연구회는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구례군의 역사·문화·생활사적 특성을 조사해서 구례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한 생생한 자료를 영상으로 촬영, 정리하고 활용하고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지난해부터 구례주민 전승지식 수집 및 영상물 제작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현장 참여는 연구용역 대상 마을인 간전면 아동마을(불무동·수달마을)과 간문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마을 유래와 여순 10.19.사건 등에 대한 마을 어르신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피해조사 현황과 요구사항 등을 청취했다. 간전면은 산동면과 함께 여순 10.19.사건의 주요 피해지역이어서 피해와 관련된 증언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주민들은 인접한 수달생태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이와 연계한 마을 발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나타냈다. 구례군의의회는 2020년 의원연구단체 규정을 마련하여 2021년부터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관심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구례생활문화사연구회와 구례향토음식문화연구회(대표 문승욱 의원)가 구성되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유시문 구례군의의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전문적인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의회의 정책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선도적이고 실천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보다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 전북도의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및 갈등 조정 나서기로

전북도의회는 16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부안군 김정기(부안)·김술지(비례) 의원, 군산시 강태창(군산1)·김동구(군산2)·박정희(군산3)·문승우(군산4) 의원, 김제시 나인권(김제1)·황영석(김제2) 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전북 발전의 동력이 되어야 할 새만금 개발사업이 새만금 지구의 관할권을 둘러싼 3개 지자체 및 지방의회 간 끊이지 않는 분쟁으로 인해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원들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성공을 위해 앞으로 전라북도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시군 간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유도하는 중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며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 및 활동 방향에 대해 의논했다. 사전 간담회를 주최한 김정기 의원은 “새만금 권역 내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을 묶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전북 발전의 필수

적 요소”라며 “도의회가 현재의 갈등 상황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과 그 효과가 인근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서울시, '서울페스타2023' 외래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최대 5백만원 지급

## 페스타 연계 상품으로 외래관광객 50명 이상 유치 시 여행사별 최대 5백만 원 지급

서울시가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8일간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서울페스타 2023(SEOUL FESTA 2023)'와 연계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외래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최대 5백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페스타 2023은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서울을 외래관광객들이 직접 방문해 그 매력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체험형 축제로 기획됐다.

시는 서울페스타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해, 여행사들이 고품질 체험관광

콘텐츠를 토대로 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페스타 연계 관광상품을 판매해 50명 이상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1인당 2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여행사별 지급 한도는 최대 5백만 원이다.

인센티브 신청을 위해서는 서울페스타 기간 동안 주요 행사 일정을 포함한 관광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서울페스타가 8일간 진행되는 만큼, 전·후반기로 기간을 나누어 필수 상품 구성 조건을 다르게 정했다.

4월 30일~5월 3일 중 운영되는 관광상품은 '서울페스타 개막식'과 '광

화문광장 행사' 일정을 포함해야 하며, 5월 4일~5월 7일 사이에 운영되는 상품은 '광화문광장 행사' 또는 '서울 브릿지 맛-켓' 둘 중 1개 이상의 일정을 포함해야 한다.

서울페스타 전반기인 4월 30일~5월 3일 중 운영되는 상품은 개막식 일정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 이 기간에 관광상품 운영 계획이 있는 여행사는 3월 16일부터 서울관광재단 누리집 사전 신청을 통해 개막식 공연 관람권을 배정받을 수 있다.

외래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신청은 서울페스타 종료 다음 날인 5월 8일부터 서울관광재단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업체 적격 여부 및 증

빙서류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인센티브를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관광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서울페스타 2023'을 서울관광 부문의 계기로 조성하기 위해 K-팝 공연부터 뷰티·미식을 포함한 체험 이벤트까지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많은 여행사가 서울페스타 기간 준비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서울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해줄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서울페스타 2023 관광상품화 특별지원**

지침내용  
 ● 서울페스타 2023 행사에 외래관광객 50명 이상 유치 시 1인당 2만원(부가세 포함) 여행사별 최대 5백만원 지급  
 ● 서울페스타 2023 개막식 공연 관람권 지급

신청자격  
 \*관광진흥법에 따른 서울 소재 '종합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방법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진흥팀에 제출

추진일차  
 3. 16(목) ~ 3. 22(수) 개막식 관람권 사전 신청  
 4. 30(일) ~ 5. 7(일) 여행사 상품 운영  
 5. 8(월) ~ 5. 31(수) 지원금 접수, 검토 후 순차 지급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문의  
 여행사 개대시 관광권 사전 신청  
 서울관광재단 관광진흥팀  
 전화 02-3788-0823  
 이메일 festa0810@gmail.com  
 여행사 소재 실적 지원금 신청  
 서울페스타 2023 관광상품화 특별 지원 운영사무국  
 전화 02-2645-1194, 1195

## 서초구, 어르신을 위한 1:1 맞춤형 '디지털 상담소' 운영

서울 서초구는 이달 7일부터 일상 생활에서 IT·디지털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만 55세 이상 서초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초구 디지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설된 '서초구 디지털 상담소'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IT·디지털 기기 사용방법 및 관련 정보를 1:1 맞춤형으로 상담·교육하여 '스마트 시니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인터넷 활용 △한글 및 워드 문서작성 및 편집 △스마트폰 활용법 △키오스크 사용법 등에 대한 상담 및 궁금증 해소와 함께 어르신이 '서초구 IT교육센터'에서 강좌를 수강할 경우 수업 중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나 복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충수업도 가능하다.

'서초구 디지털 상담소'는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상담소 이용은 네이버 예약 시스템, 전화 예약 및 서초구 IT교육센터(반포1동 주민센터 4층) 방문을 통한 사전 예약 후 가능하며 1회당 50분간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월 2회, 연간 최대 20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4일 간 상담을 진행한 결과 모든 회차가 조기 마감되는 등 어르신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상담에서는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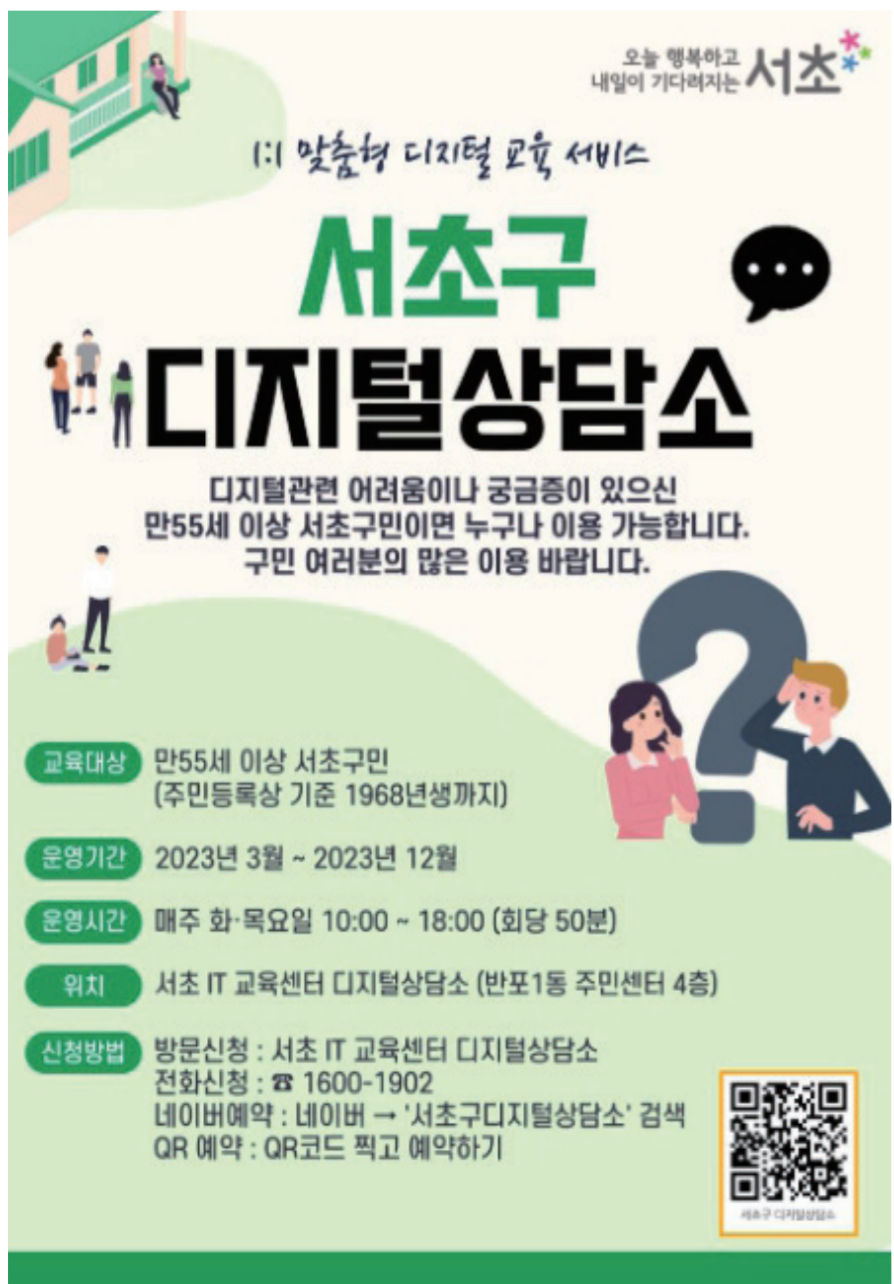
털사이트 회원 가입 및 검색방법 △LH 청약센터 앱 스마트폰으로 사용방법 △대중교통 길찾기 이용방법 △스마트폰으로 쇼핑 후 결제하기 등 스마트폰 활용법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담을 받은 한 어르신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온라인 강의를 봐도 손이 느려서 따라가기가 힘들었는데 전문 강사가 직접 옆에서 1:1로 차근차근 알려주니까 이해가 빠르다. 앞으로 디지털 상담소를 자주 이용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구는 정보취약계층 어르신의 IT·디지털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어르신을 위한 서초구 IT교육센터의 수준별 맞춤형 정보화 강좌 운영(정규 30개, 특강 32개) △17개 동주민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강사가 직접 찾아가며 진행되는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어르신들의 IT 지식과 활용능력을 뽐내는 '스마트시니어 경진대회' △VR·드론·3D프린터 등을 활용한 'IT 융합특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를 추진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어르신들 비롯한 디지털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하고 전문화된 IT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

1:1 맞춤형 디지털 교육 서비스

# 서초구 디지털상담소

디지털관련 어려움이나 궁금증이 있으신 만55세 이상 서초구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교육대상 만55세 이상 서초구민 (주민등록상 기준 1968년생까지)

운영기간 2023년 3월 ~ 2023년 12월

운영시간 매주 화·목요일 10:00 ~ 18:00 (회당 50분)

위치 서초 IT 교육센터 디지털상담소 (반포1동 주민센터 4층)

신청방법 방문신청 : 서초 IT 교육센터 디지털상담소  
 전화신청 : ☎ 1600-1902  
 네이버예약 : 네이버 → '서초구디지털상담소' 검색  
 QR 예약 : QR코드 찍고 예약하기

## 영등포 구민으로 새 출발... '청년 주택 입주를 환영(YOUNG)해' 행사 개최

### 3월 15일, 영등포 오랑에서 당산동 청년 주택 입주자 환영 행사 개최

영등포구가 지난 15일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에서 당산동 청년 주택 입주자를 환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산동 청년 주택(포레나 당산)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영등포구청역 근처에 건립한 496세대 규모의 청년 주택이다. 2019년 3월 착공에 들어가 2022년 12월 준공됐으며, 현재까지 397세대(80%)가 입주를 마쳤다.

특히 구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청년 주택 사업시행사와 사회 공헌 협약을 맺고 당산동 청년 주택 2층에 청년 맞춤형 공간인 영등포 오랑을 조성했다.

영등포 오랑은 청년 거점공간으로 청년들의 여가생활, 학업, 업무 등을 위한 시설 제공뿐만 아니라 취업 활동과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는 당산동 청년 주택 입주자 및



이용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택 입주를 환영(YOUNG)해' 행사를 개최해 영등포 오랑을 소개하고 활기찬 청년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뒀다.

환영 행사로는 ▲영등포 오랑의 주요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오랑 집들이 '우리 집을 소개

해' ▲인테리어 소품인 왁스타블렛(방향제)을 만들어보는 문화 프로그램인 '입주를 환영해' ▲이웃 간 관계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자리인 '기웃기웃 간담회'가 마련됐다.

구는 환영 행사에 앞서 현수막 게시, 소식지 형태의 홍보물 송부 등 영등포 오랑과 환영 행사를 입주진

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데 힘썼다. 이는 2월 말 진행된 환영 행사 접수가 삼십분 만에 마감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이어졌다.

환영 행사에 참여한 청년 주택 입주자는 "영등포 오랑에 있는 공유 주방, 서재, 회의실 등 청년들의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기대된다"라며 "입주자 네트워크를 통해 이웃 간 얼굴을 익히고 관심사를 공유하는 시간도 유익했다"라고 전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 구민이 되신 입주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희망찬 앞날을 힘차게 응원하겠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박환신/기자

## 송파구, 주민과 함께 '봄맞이 특별 대청소'...31일까지 골목골목 살살이

### 21일은 대청소의 날, 구청과 각 동주민센터 대대적 합동 청소 실시

송파구는 봄을 맞이하여 3월 한달간 미세먼지와 찌든 때를 제거하기 위한 '봄맞이 특별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청소는 동주민센터의 직능단체, 통반장, 골목길 자율청소조직, 지역상인, 공무원 등 주민 3,000여 명이 참여해 관내 27개동 전역의 청소를 진행한다.

먼저,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동별 취약구역을 중심으로 물청소차 6대, 먼지흡입차 8대, 가로노면차 7대, 소형노면청소차 5대 등 청소차량을 총동원해 도로를 청소하고,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택시승강장, 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을 물청소로 세척해 겨우내 쌓인 먼지를 닦아낸다.

이와 함께 올해는 대형 청소차량이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청소에 효과적인 '친환경 노면청소기' 1대를 시범 운영하여 구석구석 깨끗한 거리를 만들 예정이다. 전기 동력으로 쉽게 끌고 다닐 수 있게 만든 노면청소기를 활용해 이면도로를 비롯한 상가, 음식점 등 밀집지역에 버려진 무단 투기물, 빗물받이 사이에 끼인 담배꽂초, 불법 전단지 등을 제거해 청결한 도시미관을 조성한다.

특히, 3월 21일은 '봄맞이 대청소의 날'로 정하여 구청과 각 동주민센

터에서 대대적인 청소 활동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구는 풍납동 일부 구간을 '봄맞이 대청소의 날'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풍납동 주민, 환경공무원 등의 인력은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보도 청소, 인도 전신주의 광고물 제거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보도살수차, 소형노면청소차 등 차량을 이용한 물청소를 통해 인도·차도 및 빗골목을 깨끗하게 단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지역 1개동 외 나머지 26개 동주민센터에서도 대청소를 진행한다. 각 동별 무단투기지역이나 학교주변, 공원 등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직능단체, 골목 호랑이

어린, 골목길자율청소단 등 다양한 주민들과 함께 주변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봄맞이 대청소를 시작으로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클린데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자율적 청소참여를 독려하고 주변 도로와 가로시설물의 물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도시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대청소를 통해 겨우내 묵었던 때를 벗겨내어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나아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 서대문구, 이대 앞 상권 업종 제한 사실상 폐지..지역 활성화 기대

서대문구는 이대 앞 상권인 대현동 37-32번지 일대의 건축물 권장용도를 대폭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10여 년 전인 2013년 9월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의료·잡화 소매점과 이 용역을 권장업종으로 정한 바 있다.

권장업종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하지만 권장용도로 사용하던 부분을 타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야 해 사실상 업종 가능 업종이 제한됐다.

이러한 가운데 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시장 여건이 변화하며 기

존 권장업종의 경쟁력이 약화돼 상가 공실 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이달 1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권장업종을 음식점, 제과점, 공연장, 전시장, 서점, 도서관, 사진관, 학원, 체육단련장, 볼링장, 당구장, 노래연습장, 의원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구는 이번 권장용도 확대 외에도 올해 '신촌·이대지역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내년에는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재 정비'를 추진하는 등 장기간 체계적 온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권

장용도 확대도 다양한 형태의 점포가 들어와 이대 앞 상권에 활기를 줄 것으로 전망하며 나아가 신촌 지역

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일들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시장님도 성과급 드려야겠네요” 용인특례시 직원들, 국가산업단지 용인 유치에 잇따라 ‘호평’

### 용인시공무원노조, “이상일 시장은 40년 전 기업인 이병철 회장의 바통을 이어 받았다” 호평

“40년 전 기업인 이병철 회장이 있었다면 40년 후 정치인 이상일 시장이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용인특례시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 16일 ‘이상일 시장님! 큰일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이 시장을 높이 평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조합으로서의 이례적인 일이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3월 15일 발표한 ‘남사·이동 첨단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또 “1983년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도쿄선언을 통해 반도체 사업 본격 진출을 선언한 후 기흥에 64K DRAM 메모리 공장을 준공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를 열었다”며 “그로부터 40년 후 2023년에 반도체 위기를 극복할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여겨 있었다”고 남사·이동 첨단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노조는 “40년 전 기업인 이병철 회장이 있었다면 40년 후 정치인 이상일 시장이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많은 용인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이만한 성과를 가져온 정치인이 있을까 싶다”며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라는 난제가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결단과 삼성의 용인 투자를 이끈 데에는 분명 이상일 시장일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조합을 비롯한 용인시 전 공직자들은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라는 마음으로 지휘자를 믿고 세계 반도체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작품을 멋지게 연주했으면 한다”며 성명을 마쳤다.

노조의 성명만큼이나 시 소속 공직자들의 기대감과 자긍심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시청 직원들이 글을 올리는 익

명 내부통신망인 ‘소통과 공감’에는 “우리 용인이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됐네요. 게다가 세계 최대 규모로 짓는다고 하니 대단합니다. 우리 용인 엄청 발전할듯. 자랑스럽네요.”, “용인시공직자로서 자긍심이 더욱 업되네요 시장님 파이팅입니다”, “용인시의 역사적 쾌거입니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상일 시장에 대한 극찬도 이어졌다.

“시장님은 용인시민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동안은 지역 정치 현황에 매몰되어 큰 그림을 못 그렸는데 시장님 인맥을 총 동원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해 르네상스 용인의 길을 열어 시민들에게 크나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역시 자치단체장은 정당이 아닌 인물이 중요합니다. 시장님 인맥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총 동원한 결과입니다”, “이번 건은 시장님 혼자 해낸 거라



요. 혼자 비밀로 발표때까지 노심초사 하셨을 시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시장님 짱! 역시는 역사다~~~ 시장님 하고 싶은거 다 하세요~”, “시장님도 성과상여금을 드려야 겠네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조혜영/기자

## 화성시, ‘기반시설조성 기금’만든다

### 17일, ‘화성시 기반시설 조성 기금’제정·공포

화성시가 17일, ‘기반시설 조성 기금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지난 10년간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뤄냈지만 광활한 지역적 특성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 보상 등에 따른 공사장기화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이다.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채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토지보상비, 설치, 정비, 개량에 투입될 예정이다.

기금 집행은 오는 2024년부터이며,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보상비와 사업비를 적기에 투입할 수 있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기반시설 격차를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100만 대도시를 위한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안성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총력

### K-반도체 벨트 중심·교통접근성·인재 양성 등 반도체 산업 최적 도시

안성시가 미래 먹거리 창출의 일환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첨단산업 발전 및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으로 나눠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반도체 육성 자문단 구성과 국회 토론회, 기업인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반도체 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화단지 공모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분야로 나눠 특화단지 지정 및 각종 지원 등이 이뤄지며, 오는 상반기 중으로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15일에는 특화단지 공모사업과는 별개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추진계획 및 후보지 선정 결과가 발표되며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인 남사읍 시스템반도체 단지는 안성과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 시는 반도체 소부장의 안정적인 공급과 동반성장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안성은 K-반도체 벨트의 중심에 위치해 용인과 판교, 화

성, 평택 등 인근 반도체 대단지와의 산업 연대가 수월하고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및 향후 조성 예정인 철도망을 통한 사통팔달 입지 여건을 보유했다.

여기에 수도권 성장관리 지역으로 공장 입지에 최적화됐으며, 반도체 관련 지역대학과의 연계로 기술개발 및 전문화된 인재 양성이 가능한 강

점을 지녔다.

시 관계자는 “안성의 차별화된 전략 경쟁력을 토대로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 앞장서는 한편, 반도체 소부장 산업 육성과 인력양성센터 조성을 가속화 하는 등 반도체 허브 도시로 입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 성남시, 청소년 바이오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 시 5400만원 지원·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질병 치료·신약 개발 과정 등 배워

성남시는 오는 4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분당구 삼평동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청소년 바이오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앞선 지난해 10월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바이오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을 통해 운영하기로 한 협력사업 중 하나다.

성남시가 5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정규, 일일 등 2개 분야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정규 프로그램은 지역 소재 중학교 1학년생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파스퇴르 주니어 과학 교실’이다. 1학기(4~8월)와 2학기(9~12월)에 각각 15명을 선발해 5회 과정의 수업을 한다.

해당 기관 연구진에게 감염병과 암 등 질병의 발생과 치료, 신약 개발 과정 등 생명 과학 분야에 대해 배우게 된다.

과학 교실 1학기 수강생(15명) 모집이 이뤄져 참여하려는 중학교 1학

년생은 오는 3월 28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나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홈페이지를 접속해 공모문에 적힌 이메일로 지원서를 보내면 된다.

일일 프로그램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연간 8~10회 운영하며, 회당 20여 명이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현장을 탐방한다. 국내외 우수 과학자들과 만남의 자리도 마련된다.

참여 신청은 중·고등학교가 학급별로 할 수 있다. 진로체험지원 전산망인 ‘꿈길’을 접속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우수한 연구기관을 방문해 경험을 쌓는 일은 미래 한국의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꿈나무들에게 값진 양분이 될 것”이라며 “여름·겨울 방학 기간에 대학생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성용/기자

## 오산시 ‘공연이 있는 날’ 18일 고인돌 공원서 열린다

오산시는 오는 18일 토요일 오후 4시 고인돌공원에서 야외 상설공연인 ‘공연이 있는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총 3개 팀, 25명의 아티스트가 출연하여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라인업을 보면 오산첼리앙상블의 전자 첼로, 가람국악예술단의 국악, 흥이난타의 퓨전난타가 차례로 공연을 하며 고인돌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고인돌공원 방문객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한편, ‘공연이 있는 날’은 민선 8기 복합문화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의 예술단체를 선발해 무대를 제공하는 등 지역 예술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양시현/기자



## 수원시, '2023년 시민농장 체험 텃밭' 참여자 대상 사전 교육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농장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을 일구길”

수원시가 ‘2023년 시민농장 체험 텃밭’ 참여자를 대상으로 3월 18일까지 사전 교육을 한다.

수원시는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2023년 시민농장 체험 텃밭’ 신청을 받았고, 추첨을 거쳐 ▲탑동 시민농장 1500세대(16㎡) ▲두레뜰 공원 140세대(10㎡) ▲물향기 공원 180세대(10㎡) ▲청소년 문화공원 80세대(10㎡) 등 1900세대에 텃밭을 배정했다.

지난 10~11일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두레뜰 공원·물향기 공원·청소년 문화공원 체험텃밭 참여자 400명을 대상으로 교육했고, 탑동시민농장 체험텃밭 참여자 사전교육은 16일 수원시청 강당에서 시작했다. 18일까지 3일 동안 1500명이 교육을 받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6일 교육에 앞서 참여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시민농장 체험 텃밭에서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행복도 일구길 바란다”며 “수

원시가 ‘농업혁신 정신’이 뿌리 내린 도시로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시 농업을 사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전교육에서는 수원시 도시농업팀장이 도시생태농업을 설명하고, 텃밭을 이용할 때 주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은 ‘친환경 도시생태농업 실천’ 등 이행 사항이 담긴 이행협약서에 서명했다.

텃밭은 쾌적하게 관리해야 하고, 친환경 도시생태농업을 실천해야 한다(비닐·화학비료·화학농약 등 화학 자재 사용금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작물(키 큰 작물, 덩굴작물)은 재배할 수 없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험텃밭 참여자들이 도시생태농업을 이해하고, 이행협약 내용을 잘 실천해 쾌적한 텃밭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바란다”며 “텃밭에서 가족, 이웃과 소통하며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광명소방서, 의로운 마음과 뜨거운 용기의 의용소방대원 기념행사 개최

2023년 제2회 의용소방대의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



광명소방서는 17일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광명극장서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다시 힘차게'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원들의 숭고한 봉사활동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고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3월 19일로 1958년 소방법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설치근거가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소방의 상징번호인 119를 조합해 정했다.

이날 행사엔 임오경, 양기대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의원 5명, 안성환 광명시장, 광명소방서장, 원로의용소방대장 등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용소방대의 역사 사진전시회 △

유공자 대한 표창 수여 △의용소방대원 이동춘, 최은경, 최미나 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CPR연극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특히 지난 8일 소방서에서 임명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자원봉사 모임인 'Global 소방안전 서포터즈' 일원 중 3명은 신규의용소방대로 임용되어 지역 외국인 대상 안전교육, 통역지원봉사등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박평재 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날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 경기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시동'

도-시군 간 바이오 발전방안 토론회 및 바이오 기업 유치 등을 위한 협조방안 논의

경기도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시흥시, 서울대학교와 함께 17일 시흥시청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제1차 추진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도-시흥시-서울대가 체결한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는 공모 준비를 위한 진행 상황과 세 기관 간의 협력 사항 등을 논의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국가별 백신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중·저소득 국가들의 백신 자체 생산역량 강화에 나서며 우리나라

를 전 세계 유일의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공모를 계획 중으로 4-5월경 사전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흥시는 인천공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으며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이 들어설 계획이어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가 들어설 최적의 입지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태성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유치는 서울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토대로 시흥시가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경기도박물관, 《경기 사대부의 삶과 격, 지식》 특별전 기간 연장

- ▶ 지식 특별전 5월 28일(일)까지 연장 운영
- ▶ 3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전시 연장 인증 이벤트 운영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관장 김기섭)은 현재 개최 중인 《경기 사대부의 삶과 격, 지식》특별전의 전시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시 종료일인 3월 26일(일)에서 2달을 더 연장해 5월 28일(일)까지 도민들에게 전시를 선보인다. 이번 특별전은 경기도박물관 대표 유물 중 하나인 조선시대 지식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첫 전시로서 그 의미가 크며,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과 관심이 이어 이에 보답하고자 전시를 연장한다.

경기도박물관은 전시 연장을 실시하며 관람객들의 호응에 보답하고자 <지식 특별전 SNS 이벤트>를 준비했다. 3월 29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박물관을 방문하여 본인의 SNS에 인증을 해주시는 관람객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한다. 뜻있는 특별전 관람과 더불어 즐거운 이벤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길 바란다. 전시 연장과 이벤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누리집이나 박물관 공식 누리소통매체(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혜영기자



### 똑똑한 부모, 행복한 출산 위한 '시흥 맘 건강 프로젝트' 운영

시흥시 정왕보건지소에서는 똑똑한 부모의 행복한 출산을 위한 시흥맘 건강 프로젝트 '시흥맘! 건강드림(Dream)학교'를 운영한다.

지난해 시흥시 정왕보건지소가 진행한 임신부와 육아맘을 위한 비대면·대면 모자보건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이를 반영해 올해 마련한 대면 교육 확대에도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2023년 시흥맘! 건강드림(Dream)학교는 임신부·육아맘의 사전 요구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총 4강으로 진행한다. 강의 내용은 ▲시흥형 출산·육아학교 ▲임산부 요가교실 ▲임산부 손태교 동아리 운영 ▲산전·산후 우울 예방 교육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시흥형 출산·육아학교'는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 운영할 예정이며, 강의는 총 4강으로 품곰이 구성돼 있다. ▲산전관리 출산 ▲모유수유 ▲산후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행복한 태교로 구성된 출산 및 육아에 꼭 필요한 내용 학습으로 똑똑한 부모가 되기 위한 유익

한 시간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임산부 요가교실' 또한 매주 목요일 총 4회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임산부의 골반 유연성을 길러줘 분만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산부, 육아맘의 자조모임과 더불어 '임산부 손태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 손태교 활동을 수시 운영한다. '산전·산후 우울 예방 교육'은 난임·임신·산후에 겪는 스트레스 및 우울감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오는 4·5월, 9·10월 중 운영된다.

수업 신청은 시흥시청 누리집 내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추가로 정왕보건지소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유선 접수 등을 통해 각 강좌 시작일 일주일 전까지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이번 모자보건 프로그램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좋은 밑거름이 돼 '똑똑한 부모! 행복한 출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 경기도교육청, 모든 학생이 존중받는 특수교육 실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앞장설 것

경기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17일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대상 상반기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고, 통합교육 및 현장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 특수교육의 이상을 현실 특수교육의 일상으로 만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사람들의 세상(삶)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대면과 비대면(온라인) 혼합 방식으로 운영해 450여 명이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임 교육감의 특강을 시작으로 ▲경기 특수교육 정책 강연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제고 방안 협의 ▲지원센터 교사의 삶 공감 토크 시간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특수교육 정책 이해와 지역별 특색 있는 센터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바르게 성장하는 특수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중심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교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힘든 일도 많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에 보람과 가치를 느낀다. 오늘 워크숍에서 다양한 사례 나눔과 정보 공유의 기회가 있어 만족스러운 시간이



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특강에 나선 임 교육감은 "사회가 같이 발전하려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사회 공동체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와 센터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부족한 인력과 재원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와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 대상자의 여러 문제는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이

해해 보면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소명을 갖고 학생을 위해 힘쓰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 ▲특수교육대상학생 서비스 지원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현재 도내 25개 지원청에 총 32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2023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신청, 모집 혁신적 사회적기업을 꿈꾸는 창업가 모여라!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고양시 내에서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기업인)을 대상으로 창업 공간과 교육, 컨설팅, 시제품 제작비 등을 지원한다.

센터는 '2023년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을 고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와 센터 블로그 등을 통해 공모 중이며, 오는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본 사업은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맡는다.

사업에 선정되면 창업공간 지원(1년), 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과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며, 고양시 소재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회적기업 창업이나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공공기관 기준 사업자등록 5년 이내)관심 기업은 센터 블로그 게시판 등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기한 내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덕양구 고양대로 1393, 5층)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영기기자

**2023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마케팅부꾸는 밌! 고양

신청기간: 2023. 3. 17. (수) ~ 3. 31. (금) 18:00까지

접수기간: 2023. 3. 17. ~ 3. 31. (금) 18:00까지

대상기업: 2023년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창업 5년 이내의 기업

신청자격: 1. 고양시 소재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2.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3.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4.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5.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6.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7.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8.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9.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10.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11.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12.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13.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14.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15.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16.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17.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18.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19.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20.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21.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22.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23.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24.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25.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26.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27.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28.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29.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30.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31.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32.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33.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34.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35.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36.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37.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38.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39.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40.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41.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42.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43.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44.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45.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46.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47.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48.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49.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50.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51.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52.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53.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54.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55.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56.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57.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58.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59.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60.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61.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62.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63.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64.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65.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66.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67.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68.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69.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70.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71.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72.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73.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74.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75.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76.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77.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78.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79.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80.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81.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82.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83.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84.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85.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86.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87.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88.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89.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90.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91.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92.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93.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94.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95.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96.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97.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98.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99.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100.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 이민근 안산시장, 공약추진 보고회 주재... 시민과 한 약속 반드시 지킨다

안산시는 17일 오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민선 8기 공약 추진 보고회를 갖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민근 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3대 공약 118개 세부과제의 추진상황,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 진단 및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시는 현재 전체 103개 공약 가운데 19개 사업은 추진을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93개 사업은 정상 추진, 6건은 검토 중으로 정상 추진률은 95%에 달한다.

주요 완료 공약은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찾아가는 이동 시장실 운영 ▲시장 직속 청년위원회 구성 ▲

배달·이동노동자 쉼터 '힐링' 조성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신안산선 출입구 추가 설치(한양대역) 공사 착공 ▲안심 귀가를 위한 심야 부영이 버스 운영 등이다.

시는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및 경기도, 관계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다각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공약 이행을 위한 동력이 될 재원을 위해 국·도비 등 재원을 확보하고 중앙부처 협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경북, 이웃사촌마을 기린도전학기제로 세마리 토끼 잡는다!

- 기린도전학기제로 지역봉사, 청년인구 유입, 대학교 학점까지 인정
- 경북도, 청년유출·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위기 탈출 해법 제시
- 이웃사촌마을 봉사활동으로 학기제 학점 인정, 국내외 대학생 관심 집중

경북도는 영덕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영덕군 영해면 「이웃사촌마을」에 대구한의대와 협력으로 세대통합 지원 프로그램인 기린도전학기제(진로 체험학기제)를 운영해 한적했던 시골 마을에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참여자 주도의 지역 참여·밀착형으로 진행되는 기린도전학기제는 아이·노인 돌봄, 의료봉사, 일손 돕기, 지역 연계 활성화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되며 학생과 교수가 지역에 이주해 활동하며 학점까지 인정된다.

지역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영덕 로컬크리에이티브단 운영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조사해 참여자 진로와 지역민과 연계한 맞춤형 활동을 통해 지역 가치를 재창출한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세대통합 돌봄을 실시해 가족들의 상시 돌봄이 어려운 아이·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로 지역 인구유입을 추진할 것이다.

또 글로벌 청년네트워크단을 구성해 도내 및 타 시도, 몽골·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외국인 유학생 청년들을 지역 내 유입시켜 생활인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리빙랩(living-lab) 시스템을 현장에서 구현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대구한의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프로젝트, 한의학 봉사활동 등을 지역에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관련 학부를 지역에 유치해 인구 증대의 한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역의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현장 체험형 사업 발굴, 투자 유치의 단초가 되는 기업 위케이션 등을 추진해 '살아나는 경북,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경북'을 만든다는 각오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인구 유출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며, 그 원인이 일자리·주거·문화·교육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 인구유입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에 직접 뛰어드는 현장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웃사촌마을을 조성해 지방시대를 이끌 지역 활력 선도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스위스 제네바 피아노 트리오 내한 공연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이 세계 최고 국제 클래식 콩쿠르 우승 연주자들의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인다.

오는 17일 저녁 7시 30분 오후홀에서 스위스 최고의 실내악으로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 피아노 트리오' 내한 공연을 진행한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등 세계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와 협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제네바 피아노 트리오의 2009년 국제 음악 콩쿠르 수상자들로 구성된 스위스 정부호의 후원으로 결성됐다. 피아니스트 '이리나 슈쿠리디나', 바이올리니스트 '세르게이 오스트로프스키', 첼리스트 '단 슬로우츠코프스키' 등 세 명의 앙상블로 빛어내는 우아하고 세련된 스타일의 감격스러운 음악성을 실내악으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에는 라흐마니노프의 '슬픔의 피아노 삼중주 사단조', 독일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슈포어에게 헌정된 멘델스존 '피아노 삼중주 2번, 다단조, 작품번호 66', 위대한 예술가의 추억이란 부제가 붙은 실내악곡 중 가장 대표적인 차이콥스키 '피아노 삼중주 가단조, 작품번호 50'를 감상할 수 있다.

최고 정상의 탁월한 재능과 음악적 경험의 환상적인 실내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스위스 제네바 피아노 트리오'의 연주로 유럽을 대표하는 실내악을 만나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스위스 제네바 피아노 트리오' 관람료는 전석 2만 원으로 8세이상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안동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근수/기자



## 구미시장 "이번엔 국회로... 신성장 동력을 위한 담금질"

### 지역구별 대상사업 설명 및 대응전략 논의

구미시장(시장 김창호)은 지난 3월 16일 국회를 방문해 구자근, 김영식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신성장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공동 대응 방안 등에 논의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를 앞두고 주요 국비사업 사전 설명을 위해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국비 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 20명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52건을 포함 총 104건의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대규모 사업비 투자가 필요한 북구미IC~군위IC간 고속도로, 김천IC~낙동IC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 제5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구미~군위IC 간 국도67호선 개량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공유했고,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이차전지 산업육성 거점센터 구축,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 부품 랩 팩토리 구축, 차세대 고효율 전력 반도체 실증센터 구축, 방산 혁신클



러스터 구축,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구독형 BaaS 실증기반 구축 등 구미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연구개발(R&D) 분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구미시는 내년도 국가투자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의 사업계획과 연계 가능한 신규

사업 등 총 104건의 국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지역의 핵심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편성일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현/기자

## 상주시 '사벌국면 목상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

###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활력 증진 등 삶의 질 향상 기대

경북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90억원을 확보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축사, 공장 등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생활환경을 위협받는 농촌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공간을 용도별로 구획화하여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주시는 '21년 '청리면 덕산지구'를 시작으로 '22년 '함창읍 척동지구'와 '중동면 간상지구' 2개소에 이어 올해 '사벌국면 목상지구'가 선정됨으로써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었다.

상주시는 '목상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사벌국면 목상리 일원의 주거지역 내 축사 및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목상천 정비 및 산책로 개설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목상마을을 만들고자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착수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사업을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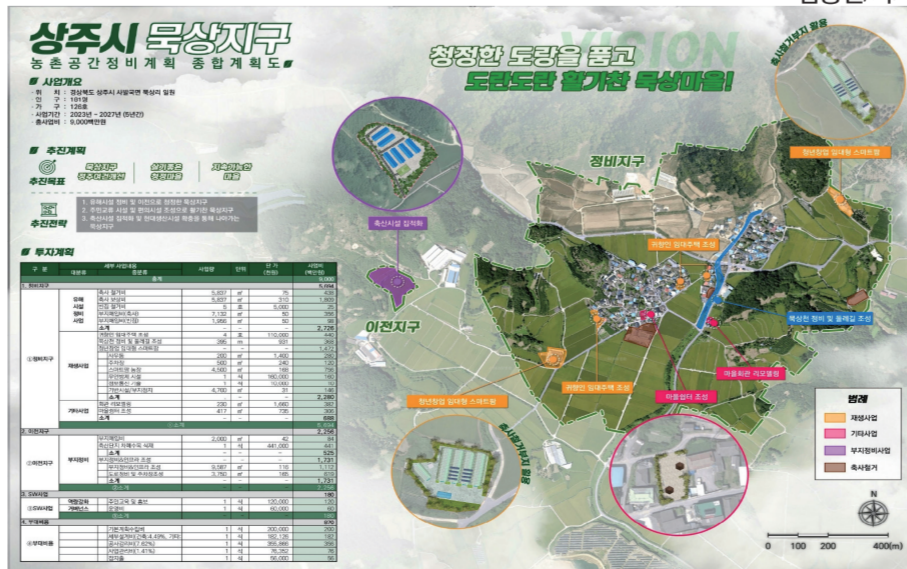
그 밖에 상주시는 변화하는 농촌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경북에서

최초로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농촌재생뉴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등 약 1,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유치하여 농촌 활력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농촌재생 마을 만들기사업 추진과 지역개발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농촌지역의 소

멸 위기를 맞아 정부 주요정책과 연계된 신규사업의 발굴을 통한 상주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는 비전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우리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농업수도 상주의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 대구소방,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분야별 출전 선수 선발

- 화재진압분야(서부소방서), 구조전술분야(북부소방서), 최강소방관 3명
- 3월 14일부터 3일간 자체 경연을 통해 3개 분야 대표 선수 선발



대구소방안전본부부는 지난 14일(화)부터 3일간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출전할 화재진압 및 구조분야, 최강소방관 대표 선수 선발을 위한 자체 경연을 펼쳤다.

화재진압분야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속도방수와 전술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화재진압전술로 나누어 경합해 서부소방서가 1위를 차지했고, 확보지점 및 로프 설치, 들것 결찰 및 수평·수직 시스템 설치, 들것 인양 등으로 구성된 구조분야에서는 북부소방서 119구조대가 1위에 올랐으며, 호스말이, 포스 빔 타격, 장애물 통과, 중량물 들고 타워오르기 등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겸비해야 하는 최강소방관 경기에서는 강서

소방서 박지훈 소방교가 1위, 서부소방서 박덕룡 소방교가 2위, 강서소방서 오용학 소방장이 3위로 선발됐다.

지난 2월 말에 선발된 구급분야 4명과, 내달 중순 선발하는 화재조사 분야까지 5개 분야 19명의 선수들은 오는 6월 13일 시작되는 제36회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출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종합우승을 위해 집중 훈련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봉진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최선을 다한 대원들의 노력과 탐방울에 박수를 보낸다"라며 "내실 있는 준비로 전국 대회 2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대구 남구청, 찾아가는 교통안전 퀴즈 버스킹 운영

### 조재구 남구청장, "안전운전 의식을 향상 교통사고 격감에 최선"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지난 13일(월) 구청 종합민원실을 시작으로 오는 23일(목)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교통사고 30% 줄이기를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 퀴즈 버스킹'을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찾아가는 교통안전 퀴즈 버스킹'은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구청 종합민원실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교통안전 상식과 법규 등에 관한

O·X퀴즈 및 초성퀴즈를 풀어보고 퀴즈참여자에게는 홍보물품을 배부한다.

또한 개학을 맞아 병덕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안전운행 수칙 및 어린이 안전보행수칙을 홍보하였다.

퀴즈에 참여한 한 참여자는 "퀴즈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와 같은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을 향상시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 의성군,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개최

### 김주수 군수, "문해교육의 기회 가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경주"



의성군과 의성휴게소는 오는 4월 9일까지 의성휴게소(영덕·청주방향)에서 찾아가는 성인문해 교육 시화전을 개최한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의성군청에서도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평생교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화전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회에서는 2022년 전국·경북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오랜 세월 가슴 속에 품어온 생각과 감정이 담겨있는 글귀는 방문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배움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학습자분들에 존경을 표하고, 모든분들이 문해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으며, "또한 시화를 감상하는 여러분들께 학습자들의 용기와 열정이 전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군은 2012년부터 비문해자에 대한

### 김충섭 김천시장,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릴레이 챌린지' 동참



##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릴레이 챌린지 동참

김충섭 김천시장이 16일 시청 현관 앞에서 공무원, 시민 및 산불전문진화대원 등과 함께 100여명이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최근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불철 가뭄 심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급증하여 산불발생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 도민에게 산불의 경각심과 숲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경상북도와 23개 시·군 릴레이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행사 슬로건은 '우리모두 함께해요! 소중한 숲 지키기'로 실천사항으로는 산림주변 소각행위 금지, 산림내 인화물질 소지 금지, 입산통제구역 출입 금지, 산림 내 흡연 금지 등

으로 특히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 및 행정명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김천시장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3. 6 ~ 4. 30까지 56일간 산불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산불은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 소각, 담뱃불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산불예방 제도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 천년고도의 공기청정 에어컨! 경주 도시바람길숲 조성!

### 총 사업비 200억원 투입 2025년까지 경주 도시바람길숲 조성

경북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 경주에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한다.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천년고도 경주의 주요 숲을 거점으로 연결시켜 주민 생활권 내 도민과 외부 관광객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바람길숲의 원리는 밤낮의 기압차를 이용해 도시 외곽에서 조성한 숲이 생성하는 맑고 찬 공기를 연결숲을 만들어 도시 내부로 끌어들이고, 도심에는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숲으로 녹화하여 대기 순환을 통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과 뜨거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기능의 생태 시스템이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8월까지 시설 설계 용역을 통해 시 전역의 바람과 환경요인 분석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2025년까지 도시바람길숲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시바람길숲 조성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지쳐있는 도민들과 경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도심에 조경미를 더해 도시의 격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올해도 “촘촘한 복지” 위해 저희가 찾아갈게요!

### 찾아가는 보건복지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위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간담회 개최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지난 3월 15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2023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통영시 1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장, 실무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와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해소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업무담당자들은 고독사 예방과 위기가구 발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숨은 위기가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통영시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중장년 1인 가구 기획조사, 위기가구 찾기 전담인력 운영,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간 인적안전망 구축·운영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위기가구와 주민이 결연을 맺고 안부확인 및 정서 지원하여 고독사 예방을 도모하는 “복지이웃맺기 사업”,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통영시 어깨동무네트워크 특화사업”, 읍면동 특성에 맞는 자체복지사업으로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지

역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올해도 통영시는 한집이라도 더 찾아가고, 세심하게 살펴보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지향하는 “통영시 어깨동무네트워크 특화사업”, 읍면동 특성에 맞는 자체복지사업으로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지

이용준기자

## 부산시, 「2023 부산 디지털 치의학 전시회 및 종합학술대회」 개최

### - 3.18.~3.19. 양일간 벵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려 - 부산을 디지털 치의학 중심도시로

부산시는 지난 18일, 19일 양일간 벵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3 부산 디지털 치의학 전시회 및 종합학술대회(BDEX)'를 개최했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시 치과의사회, 부산경제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부산 소재 치과 기자재 기업들의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은 물론 최신 치의학 치료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치의학 전시회 및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시회에서는 치과 기자재 관련 기업 47개 사가 참가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각종 프로모션을 제공하며, 학술강연에서는 14개 주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최신 치의학 기술정보를 공유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부산지역 영세한 치과 분야 스타트업 업체들의 제품 홍보를 위한 홍보관을 운영하고, 18일 오후 3시 30분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를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19일에는 부산시 치과의사회와 몽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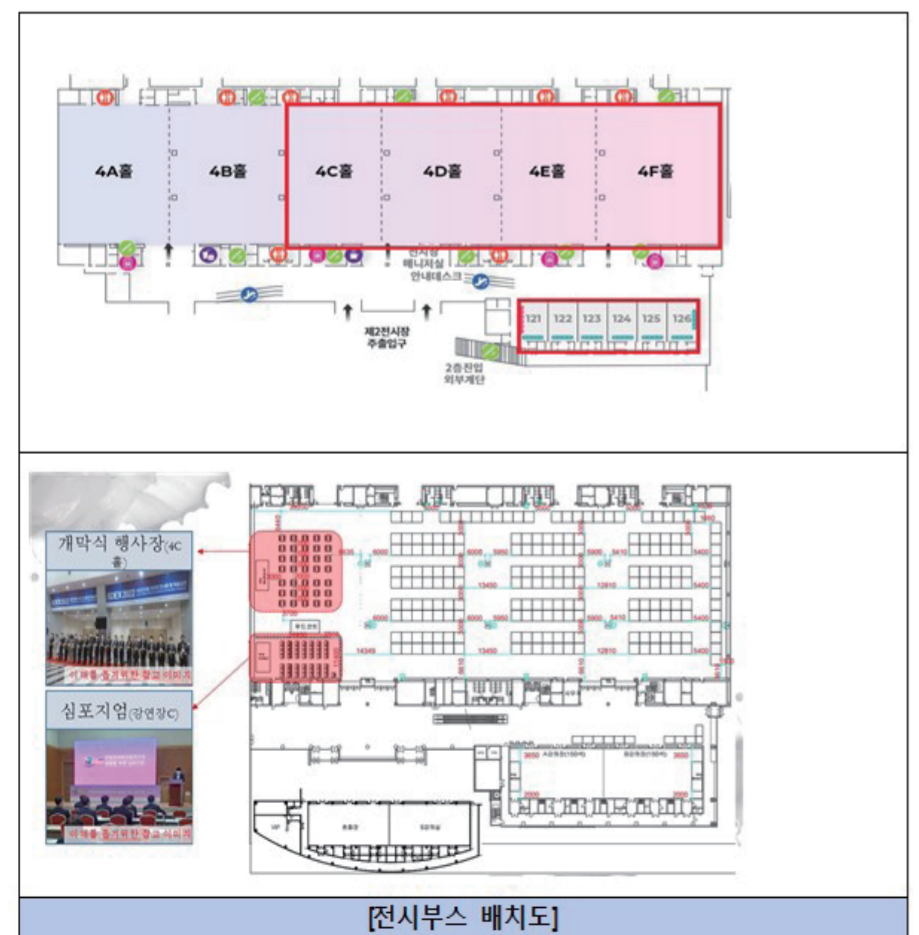
치과종합협회(General Dentistry Association of Mongolia)간의 '디지털 치의학 신기술과 최신 치의학 산업 확산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치의학 디지털 상용화 기술지원 사업, ▲치의학 기술 연구 플랫폼 구축사업, ▲디지털 치의학 신기술 교육지원 사업 등 치의학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은 지역 대학에 치의학 관련 학과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우수 인력이 많고, 관련 기업이 집적해 있어 치의학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며, “앞으로 도 치의학 분야의 지식협력을 강화하고, 이번과 같이 치의학 산업의 기술과 학술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부산이 디지털 치의학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 ▲ 2023 부산 디지털 치의학 전시회 및 종합학술대회 사진



## 영주시, 선비정신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주력

### - 인재육성장학금·영어체험센터·교육환경개선 ▶ 지속가능한 교육도시 도약 발판 마련

최초 사액서원 소수서원에 많은 인재를 양성한 전통 교육도시 영주시가 경북 북부지역 최고 교육·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표,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에 앞장선다.

지난 16일, 시는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미래인재 육성을 역점시책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육성장학회 운영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 교육의 지속적 지원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희망·도전·비전을 심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운영은 지난 2008년 출범한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2023년 3월 현재 장학금 214억 원을 조성, 교육도시로서의 전통을 잇고 더 새로운 영주를 열어가고 있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2430명의 장학생을 선발, 28억 9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2021년부터는 서울 흥제행복기숙사 지자체 입사퀴트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주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를 지원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과 면학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올해는 장학회 출범 15주년을 맞아 고액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시 차원의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시청 본관 1층 로비 벽면에 명예의 전당을 마련했고, 2023년 장학생은 지난해보다 30여 명 늘어난 총 314명을 선발한다. 접수는 4월 7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 교육 지원에 힘쓰는 글로벌 인



재 양성을 목표로 영어 의사소통의 즐거움과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거점형 영주영어 체험 센터를 비롯, 권역별 영일·풍기·부석영어체험센터 4개소를 운영 중이다. 2007년 경북 최초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설립 후 보편적 교육복지의 요람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영어캠프, 방과 후 교육 등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4개 영어체험센터에 2008년 개소 이후 처음으로 약 2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책상, 의자, 칠판 등 노후 집기비품을 교체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개선 사업 추진은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영주시는 지난 10년간 초·중·고등학교에 약 132억 원을 투

입해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영주고등학교 실습동 증축, 봉현·옥대 초등학교 옥외체육관 신축, 영광여자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교육 재정을 늘려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올해부터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외 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 원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의 백년 미래는 교육복지 정책을 통해 펼쳐 나갈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의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정책과 지역인재 양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천시, '마을·미나리·삼겹살' 드시러 오세요!

영천시가 17일을 시작으로 3일간 영천강변공원에서 '2023년 영천시 마미삼(마을·미나리·삼겹살)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영천시와 영천마을 농촌융복합사업 추진단이 주최하고, (사)한국마을생산자협회, (사)한국마을가공협회, 영천시미나리작목반연합회, 신명농협, 영천축협, 대한한돈협회 영천시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영천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 활성화와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물가 상승과 불철 흉수출하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가간(3일간) 동안 마미삼 판매장에서는 깐마늘(4,000원/400g, 9,000원/1kg), 미나리(10,000원/800g), 삼겹살(1,750원/100g), 목살(1,400원/100g) 등 영천 농축산물물을 할인 판매하고, 17일, 18일 양일간에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행사장에서 구매한 마늘과 미나리, 삼겹살을 야외 강변에서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도록 480석 규모의 구이 식당을 운영(15:00~19:00)하고 있다.

특히, 행사장 내에서는 영천마을 융복합사업을 홍보하고 마을 먹거리를 활용한 푸드축제를 연계하기 위해 영천마을로 만든 마늘푸드 시식·홍보, 밀키트 제품 출시를 위한 마늘요리 무료시식 및 품평회, 한돈 무료시식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영천시 농특산물 및 영천와인 직거래장터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 영천시 홍보대사인 유튜브 상해기는 첫날 행사장을 방문해 먹방 촬영을 통한 영천 홍보에 나섰다. 구이 식당 앞 주차대에서는 소규모의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는 등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과 영천 시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소비 촉진 행사를 계기로 마을·미나리·양돈농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작은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를 당부한다.”라며, “영천에서 생산된 신선한 마늘과 미나리, 그리고 삼겹살을 즐기면서 모두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제314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전개

- 산불 예방 캠페인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교육
- 오도창 군수, “산불은 예방활동이 중요, 산불없는 영양군 만들 것” 약속해

영양군은 지난 17일 오후 3시, 문화체육센터에서 제314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 날 캠페인은 관내 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과 연계하여 실시됐으며, 군청 건설안전과, 산림녹지과 및 영양 119안전센터 직원, 음식점 영업자 등 약 160여명이 참석하여 산불 예방 홍보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군민안전보험 확대시행 설명회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교육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현재 산불재난 국가위기관리체계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어느때보다도 군민의 의식 제고가 중요한 시기이므로 군민들은 봄철에는 눈·발두령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행위를 자제해달라고 군관계자는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며, “매년 관내에 산불이 3~4건 가량 발



생하는데, 산불 또한 철저한 예방을 목표로 산불취약지에 대해 계도활동을 철저히 함으로써 산불 없는 영양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주시, 3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아카데미 강연 열어


강사는 ‘너에게 꽃이다’ 등의 다수 시집을 발간한 강원석 시인

2023 - 3월

경주 행복아카데미 강연

주제 / 행복을 이루지 마세요

일시: 3월 31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경주서라벌문화회관  
 유튜브 채널: 평생학습도시 경주 온라인 채널  
 강사: 강원석(시인)  
 \*마스크 착용 필수\*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강원석 시인을 초청해 ‘행복을 이루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3월 행복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에 초청된 강원석 강사는 ‘너에게 꽃이다’ 등의 다수 시집을 발간한 시인으로 달빛경주, 천년지애 등 경주노래를 작사해 헌정 한 바도 있다.

행복아카데미는 이달부터 매월(연간 10회) 마지막 주에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방송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시는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멈추었던 읍면동 순회강연도 다시 재개해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최인숙 평생학습관장은 “엔데믹 시대에 맞춰 시민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청

해 삶의 활력과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강연으로 운영하겠다고”고 전했다.

한편 평생학습가족관은 이달 2일부터 상반기 평생학습강좌 강좌, 평생학습대학, 경주사랑 시민캠퍼스, 도민행복대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윤태용/기자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기념/비전선포식 개최

국가혁신 청정수소 산업클러스터, 글로벌 원자력수소 허브로서 강소도시 도약, 담대한 비전 선포

울진군은 지난 17일, 군청 광장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기념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병복 울진군수, 임승필 울진군의회 의장, 김원석 경북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군의원, 기관단체장 등 군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손병복 군수는 기념사에서 “성원해 주신 군민들과 총력을 다해준 700여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울진은 인구소멸,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미래 백년을 책임질 큰 성장동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상용원전 연계 수소생산을 위한 R&D사업, SMR활용 수소생산, 넷제로 시티 조성 등 많은 난관과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전 군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 산학융합지구 지정 및 대학 유치를 통한 산업 현장인력 양성, 물류·수소 운송을 위한 철도·고속도로·수출항만 등 산업기반SOC를 확충하여 글로벌 원자력수소 허브로서 입지리가 넘쳐나고 사람이 모이는 지



방강소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미래 울진의 비전을 발표했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사업시행자 선정,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다. 2030년까지 죽령 후정리 일원에 48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조성비는 약 4,000억원으로 국내 수소 관련 대기업을 비롯해 소부장 제조업체와 연구시설 등이 집적하게 된다.

국가혁신 수소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어 글로벌 원자력수소 허브로서 장문화/기자

### 100개 예술실험 “다가치 예술로 안동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내 삶이 변화하는 시민역(力)사문화도시 안동

시민역(力)사문화도시 안동은 안동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00개의 예술실험사업 “다가치 예술로(路) 안동 프로젝트” 공모 참여자를 모집한다.

100개의 예술실험사업 <다가치 예술로(路)안동> 프로젝트는 도시의 새로운 변화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실행해 보는 예술실험사업이다.

△시각예술 △공예예술 △전통예술 등 다양한 예술 실험활동을 통해 도시의 동시대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시민이 스스로 사유해봄으로써 안동 문화도시가 추구하는 ‘혁신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프로젝트 지원분야는 ▲공동체, ▲공간, ▲청년 등 3가지 분야이다. ▲공동체 분야는 시민 예술공동체의 활성화 프로젝트 ▲공간분야는 도시재생, 안동 문화도시 사업 공간을 활용한 프로젝트 ▲청년분야는 안동 월드컵 일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청년예술 프로젝트로 이뤄진다.

지원분야별 각 1개 프로젝트 팀을 뽑아 총 3개 팀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팀은 프로젝트당 2천만 원 이내의 실행비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 접수는 3월8일부터 31일까지 안동문화도시 플랫폼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양식을 내려받아 지원할 수 있다. 참여모집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정신문화재단 문화도시팀(☎054-857-8538)로 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2023 내 삶이 변화하는 시민역(力)사문화도시 안동



2023 3.08. 3.31.

안동행시 | 안동문화재단 문화도시팀 | 문화도시팀

### 전국 첫 스타트... 부산시, 올해 첫 시민 나눔장터 개장

-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환경보호 실천의 장!
- 3월 18일, 송상현광장에서 2023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장터 개장

부산시는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송상현광장 내 선권광장 일원에서 「2023 시민 나눔장터」를 개장했다.

코로나19 기간에도 그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나눔장터를 운영한 시는 일상회복을 맞이한 올해에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눔장터의 문을 열었다.

시민 나눔장터는 재사용을 통해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보호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최초로 개장했다.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했으며, 시민들이 직접 나눔에 동참하는 기회의 장으로 인식돼 자원재순환의 의미 있는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는 (사)에코인니아가 주관하며, 일반 시민,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가 참여해 의류, 가방, 도서 등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용품 판매하고 생활 속 분리배출 습관을 기르기 위한 폐전지·종이팩 교환행사도 진행했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직접 판매에 참여하는 어린이 장터를 운영해 환경보호 실천과 경제활동을 몸소 체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특히 이날에는 어



린이 대상 분리배출 교육과 버려지는 물품을 활용한 다양한 만들기 체험, 그리고 환경보호 캠페인 등도 함께 열려 미래 세대에 환경의 가치를 다채로운 행사로 알리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올해로 21주년을 맞은 시민 나눔장터가 시민들의 일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며, “미래환경 정책의 일환인 나눔장터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구·군 「프리마켓 시범사업」을 수영구, 금정구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사용의 즐거움과 나눔의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6회에 걸쳐 개최한 ‘2022 시민참여 나눔장터’에는 개인 및 단체 571팀, 1만8천500명이 참여, 총 7천219점이 판매돼 재사용됐고,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모금한 판매수익 257만3천 원은 전액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50가구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에 기부됐다. 송준진/기자

### 경북교육청, 성공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장 역량 강화

늘봄학교 시범운영교 관리자 역할 및 운영 사례 나눔

경북교육청은 지난 16일(목) 옹비관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 중인 4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경북 늘봄학교가 다듬어진다’라는 주제로 관리자의 리더십과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시범운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늘봄학교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공감대 형성 ▲경북 늘봄학교 시범운영 추진 계획 ▲늘봄학교 담당 인력 활용 방안 ▲늘봄학교 운영 사례/현장 애로사항 공유 등이다.

특히 이날 회의는 학교별 다양한 운영 사례와 시범운영 과정에서 빛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학교 현장의 업무경감 및 안정적인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경북 늘봄학교 시범운영 길라잡이 제공 ▲다양한 인력 운용 가이드라인 제시 ▲관리자, 학교 담당자,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15일(수)에도 교육부, 국무조정실 관계자와



함께 늘봄학교 시범운영 중인 풍천·풍서초등학교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늘봄학교의 내실있는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41개 늘봄학교는 개별 맞춤형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따뜻한 교육복지를 선도하는 학교”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가 큰 만큼 더 촘촘한 지원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며, 학교 현장에서도 미래 사회 대비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 하고 안전한 돌봄을 위해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예천군 농특산물 바다 건너 세계로~ 예천쌀 18톤 선적

### 올해 수출된 쌀 600톤,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추진



예천군은 지난 17일 오전 9시, 예천읍 지내리 제1농공단지 소재 우일음료에서 미국 수출용 예천쌀 18톤을 선적했다. 수출된 쌀은 풍양면 풍곡미곡처리장에서 도정·가공한 쌀로 희창물산(주)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의 H마트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이날 선적된 물량을 포함해 올해 수출된 쌀은 600톤에 달한다.

특히, 이번 선적에서 쌀을 비롯한 생강, 인삼, 참기름 등 우수한 예천 농특산물 2톤도 함께 미국 시장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해 함께 선적했다.

이에 군은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해 1,300여톤 농특산물 수출에 이어 올해는 3,000톤을 목표로 박람회, 판촉행사, 바이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가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수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수출업체 육성 지원 시책을 펼칠 계획이다.

전경식 대표는 "지난해 800톤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1,000톤을 발주받았고 연말까지 2,000톤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예천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석진 농정과장은 "예천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해외에서 인정받고 농가와 수출업체가 모두 윈윈하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지원 정책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 경기안정화와 민생회복 위해 신속집행 총력

### 1분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목표달성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 강화



경북도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올해 경제성장 흐름이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반기 내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민생안정 및 경기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해, 행안부 목표액 보다 상향 조정해 정부의 적극적인 신속집행 기조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속집행은 37개 통계목 대상, 예산현액 24조378억원의 65.0%인 15조6245억원을 상반기에 집중하고,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 분야 43개 통계목은 예산현액 13조3769억원 대비 21.4%에 해당하는 2조8630억원을 1분기 집행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 13일에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20개 부서를 대상으로 1분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분야 추진점검 회의를 개최해 부서별 집행을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집행 걸림돌 규제 및

어려운 상황들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 16일, 기획조정실장 주재 시군 예산담당과장 대상, 1분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추진점검 영상회의를 개최, 시군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는 등 신속집행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소비부문에서는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직장단체보험 등 맞춤형 복지비를 최대한 집행하고, 지역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직장단체보험 등 맞춤형 복지비를 최대한 집행하고, 지역업체를

통한 비품·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등 1분기 내 공공부문 재정을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투자부문에서는 1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공사 진행상황, 선금·기성금 지급률, 집행 장애요인 등을 매월 집중 관리하고 긴급입찰, 선금급 지급 확대, 각종 심사기간 단축,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 등 정부의 신속집행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정이 적시적소에 집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글로벌 경기위축, 고물가·고금리 영향 등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재정투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경북-대구교육청, 2023 교류증진 실무협의회 개최

### - 지난 5년의 교류 성과 기반으로, 신규 사업 발굴 추진 - 임종식 교육감, "두 기관의 활발한 교류 사업, 상생·발전하길 기대"



경북교육청은 지난 17일(금), 경상북도교육청 삼국유사규위도서관에서 '2023 경북-대구교육청 교류증진협의회'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경북-대구교육청 교류증진협의회'는 미래사회 인재 육성과 교육 교류

증진을 위한 두 기관 간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난 2018년부터 총 4회 개최됐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양 교육청의 담당 과장을 비롯해 교류사업 업무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해 지난 5년간의 교육정책 교류사업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2023 신규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는 경북교육청이 제안한 ▲초등수업나눔축제 공동 개최 ▲세계시민교육 국제포럼 협력과 대구교육청이 제안한 ▲대구-경북 원격협력학습 운영 ▲소규모 유치원 활성화 지원 사업을 교류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교육정책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활발한 소통으로 함께 도약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 5년의 교육정책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두 기관 간의 교류 사업이 활발히 추진돼, 함께 상생·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봉화 청량산풍경원, 농촌유학 활성화 나선다

### - 각종 공모사업 선정으로 농촌유학 교육여건 개선 - 박현국 봉화군수, "농촌유학 경험으로 봉화가 제2의 고향돼길"



봉화 청량산풍경원 농촌유학센터가 각종 공모사업 선정으로 운영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청량산풍경원은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유학 지원사업'에 올해에도 선정돼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개보수비 등 농촌유학 교육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1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또한 경북도가 주관하는 경북형 소규모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 사업비로 '양삼마을 그림속 캠프 조성사업'을 추진해 도시에서 찾아온 부모와 유학생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봉화군 명호면에 위치한 '청량산풍경원 농촌유학센터'는 지난 2013년 대구은행을 퇴직한 두 부부가 8대조부터 살아온 고향인 청량산 자락 아래 귀촌해 설립·운영하고 있다.

현재 청량산풍경원에는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고 자란 아이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밝은 것을 많이 보고 자란 아이들이 밝은 인생을 살아갑니다'라는 교육철학 아래 20여 명의 유학생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3위 규모를 자랑한다.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농촌유학'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농촌 학교를 살리며 아이들로 인해 마을이 활기를 찾는 등 지역 내에서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해내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저출생·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기후변화에 따른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농촌유학 등 도농교육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리 농어촌의 가치를 지키고 도농상생의 시대를 마련하겠다."면서 "농촌유학 경험을 통해 도시 아이들이 봉화에서 살아보며 봉화가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 청송군, 문화관광으로 미소짓는 상생 경제 실현!

### 윤경희 청송군수,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관광 도시로 지역 경제 활성화"

청송군은 올해 다양한 관광 시책사업을 추진해 '주민참여형 생태관광도시 산소카페 청송군' 조성에 나선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언택트 생활문화의 영향으로 관광객이 부족했던 지역, 밀집된 공간보다는 소규모의 히든 플레이스와 밀폐되지 않은 야외공간이 지속적으로 선호되고 있고, 지금까지 유명세를 떨치던 관광지보다는 관광객이 몰리지 않는 여행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청송군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생태관광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산소카페 청송군'의 차별화된 청정 자연과 유서 깊은 전통문화, 참신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융합하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비대면 관광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관광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갈 전략을 세웠다.

우선,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 단지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을 만큼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산지 양버들을 복원하고 새로운 관광지로 자리 잡은 청송정원 인근 자작나무 명품 숲을 조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청송 사과축제'를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나간다.

올해 개최되는 제17회 청송 사과축제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 청송사과축제의 특장점과 색깔을 담아내어 청송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드높이고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걸맞은 최고의 사과축제를 준비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불거리, 줄길거리, 먹거리가 공존하고, 사람의 숨결까지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고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려 관광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서구문화회관, 마토콘서트'하모나이즈 The Show Choir'개최

서구문화회관은 오는 25일 오후 5시 마토콘서트에 쇼콰이어 그룹 하모나이즈의 'The Show Choir'콘서트를 서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한다.

2013년 목소리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대표 문화사절단이 되고자 창단한 쇼콰이어 그룹 하모나이즈는 보컬리스트부터 래퍼, 댄서와 연주자가 하나로 펼쳐 보이는 현대합창의 진수를 선보이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과 2018년 러시아와 남아공에서 각각 개최한 세계합창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자격으로 쇼콰이어와 팝양상을 종목에 출전하여 금메달 4관왕을 수상하고 그랑프리에 올라 세계적인 이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연이은 방송 출연과 유수 뮤지션들과 협연으로 쇼콰이어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서구문화회관의 올해 두 번째 마토콘서트인 'The Show Choir'콘서트는 하모나이즈가 SBS '싱포폴드'에서 준우승 이후 새롭게 구성한 기획프로그램이며, 음악 장르별로 하모나이즈만의 색깔을 입힌 편곡을 다채로운 하모니와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재탄생한 7개의 스테이지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관람은 전석 무료이며 10세 이상 가능하다. 사전 예매(1인 2매)가 필수로 22일 오전 9시부터 티켓링크 및 방문 예매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구문화회관 황영희 관장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하모나이즈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다양한 색깔의 하모니를 통해 전혀 새로운 합창콘서트의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전북 국회의원, 새로운 전북에 맞춘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 여야 국회의원들이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자리에 모였다.

앞서 전북도는 민선 8기 들어 전북 여야 국회의원들과 매월 조찬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 사업 해결 등 새로운 전북 실현을 위한 대화 창구로 활용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2024년 국가에 산학보와 전북 주요 안건들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 공모선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대응”,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총사업비 일괄 승인” 등에 대해 소관 실국장로부터 보고 받은 뒤 향후 추진 과제들을 놓고 토의했다.

의원들은 국비 건의 필요성과 현안 사업 시급성에 공감하며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특히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하 대광법)’ 현안은 지난 2월 조찬간담회에 이어 주요 쟁점이 됐다. 전라북도와 전북여야 의원들은 대광법 관련 국회 현황을 공유하며 추진 속도와 완성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오는 21일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 대광법이 다뤄질 것으로 본다”며 “소위 위원님들과 부처 설득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번에 전북 2개 국가산단 확정 성과가 있었다”며 “원팀 협치가 있어서 가능했기에 대광법 개정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자”고 했다.

현재 대광법은 전북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운덕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며, 광역교통시설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낙후된 교통인프라 개선이 기대된다. 특히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환경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주춧돌로 삼을 수 있어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주력하는 이유다.

김관영 지사는 “올해 상반기 목표는 대광법과 공공의대법 통과다”며 “해당 소위 위원들의 긍정적 평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또한 2024년 국가에 산학보와 관련해서 “현재 중앙부처별 예산 편성 중인 중요한 시기다”며 “전라북도가 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에 의원실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공공기관 전북 추가 이전 공동성명서 결의 의견도 모아졌다.

올해 상반기에 국토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각 시도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북특성과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중점 공공기관 선정을 위한 민관정 차원의 공동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관영 지사와 전북여야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기관 전북이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라북도의 명확한 입장을 전하기로 했다. 이남출기자

#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준공 앞두고 있어

##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5월부터 본격 운영

군산시가 골목상권 가격경쟁력 향상과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경남동 504-2번지 일원에 소재한 물류센터는 부지 11,813㎡에 1,300여 평의 창고를 포함한 건물 2동(1,978㎡) 규모로 지난 2021년 12월에 착공해 오는 4월 준공 예정이며, 1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물류센터는 지난 2월 운영협약을 체결한 전북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과 위탁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대형 창고와 냉동·냉장시설까지 갖춘 물류센터는 공산품은 물론 냉장·냉동·정육 및 1차 상품까지 16,000여 품목을 소상공인들에게 원스톱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부족한 상품 구매를 위해 인근 대형물류센터나 타지역으로 구매를 하러 빠져나갔던 소상공인들



이 이번 물류센터 운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 확대 및 대량구매를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소상공인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골목상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지역 순환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석 지역경제활력과장은 “물류센터를 통한 절감된 물류비가 소비자에게 환원되고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물류센터의 건립목적은 달성할 수 있도록 건전한 센터운영을 지원할 것이며, 안심물가제 실행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 ‘백제왕궁이 살아있다’... 익산문화재 ‘벚꽃’ 야행(夜行) 기대

## 국내 대표 벚꽃명소 활용 위해 봄철 개막, 달빛 속 왕의 후원 향유 기회

1600년 전 백제 왕궁이 벚꽃 달빛 아래 살아난다.

익산시는 대한민국 대표 벚꽃 명소로 유명한 백제왕궁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2023 익산 문화재야행’ 행사를 개최 시기에 맞춰 다음 달 7일에서 9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해 문화재야행은 ‘벚꽃’ 테마를 통해 기존 야행과 대폭 차별화되는 기획으로 찾아갈 예정이다.

‘2023 익산 문화재야행’은 ‘백제왕궁은 살아있다’는 부제를 달고 전국 47개 야행 중 가장 먼저 진행된다.

‘한국 관광 100선’에 빛나는 백제왕궁(익산왕궁리유적) 벚꽃이 만발한 시기에 개최돼 전국 각지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익산 문화재야행’은 관광 트렌드로 자리잡은 ‘인생샷’을 위해 야간경관에 차별화를 보여준다. 벚꽃 만발한 수려한 야간경관이 백제 왕궁 후원을 비롯한 행사장 내 곳곳에 펼쳐지며, MZ세대를 겨냥한 ‘인생 네컷’ 이벤트가 진행된다.

또한 곳곳에 무왕·무왕비, 백제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백제의복을 입고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들이 제공돼, 백제왕궁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한다.

무엇보다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신규 프로그램 14종이 추가로 확장돼 가족·연인·지인과 함께 백제왕궁에 대한 추억을 남겨볼 수 있다.

특히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하는 만들기 체험이 대폭



확대된다.

후원정원으로의 휴식공간 제공도 눈에 띈다. 왕의 휴식처로 사용된 후원 정원에서 방문객을 위한 왕궁 연회, 다도 및 공예 체험 등이 이뤄져 백제 무왕이 왕궁을 내려다보며 느낄 수 있는 운치를 맛볼 수 있다.

‘2023 익산 문화재야행’을 통해 알아가는 백제왕궁 이야기는 프로그램 중 백미다. 별빛 아래 천년기원을 담은 탑돌이와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백제복식을 입고 투어에 참여할 수 있다.

‘왕궁을 거닐다’ 프로그램으로 백제왕궁 건물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왕궁박물관 야간 개장을 통해 유적과 발굴체험, 가상현실을 이용한 백제 알기도 가능하다. ‘벌거벗은 한국사’로 유명한 ‘큰별 최태성 선생’

강의도 백제왕궁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방문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장 내 주차 문제로 개선됐다. 행사장 내 별도의 방문객 주차장을 없애고, 인근에 4개 주차장(팔봉공설운동장, 미륵사지 주차장, 서동공원주차장, 익산고등학교)과 셔틀버스를 15분 단위로 운행한다.

익산역 및 버스터미널에서 행사장까지 순환버스가 운행돼 자가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익산 문화재야행’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익산 문화재 야행을 선보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2023 익산 문화재야행 참여로 가족·연인·지인과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 남원시, 인공지능과 함께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예방 나서

남원시는 17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안부살핌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읍면동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인공지능 안부살핌서비스 사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전화 안부 확인 서비스와 상시 일상생활 지원 및 응급상황 대응을 통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한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사업’과 ‘KT 인공지능 스피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사업’은 위기가구에 인공지능이 주1회 자동 전화를 걸어 통화하며 건강, 식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이며, ‘KT 인공지능 스피커 사업’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설치하여 위기가구의 말벗 대화 및 복약지도, 위급상황 시 응급알림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위기가



구의 안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남원시에 회신해 준다.

남원시는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 이상 및 위급 상황으로 판단되는 대상자는 즉시 방문하여 상담과 동시에 신속한 보호조치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는 읍·면·동장 1일 1가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

원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이 평소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읍·면·동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부족한 복지인력을 보완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최첨단 복지서비스를 사회적으로 고립 위기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완주군, 봉동읍에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 본격 추진

## 17일 봉동읍 둔산리서 착공식 개최, 총사업비 103억 원 투입 2024년 4월 준공

발육 성장기에 있는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완주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완주군은 17일 오후 봉동읍 둔산리 현지에서 유희태 군수와 서남용 군의회 의장, 도의원과 군의원 등 지방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축하공문과 경과보고, 사업설명에 이어 기념사와 시삽 등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는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기본구상과 재정투자 심사 승인, 건축설계 공모 등의 과정을 거쳐 이날

첫 삽을 떠 의미를 더했다.

이날 착공한 어린이체육관은 부지 8,038㎡에 연면적 2,546㎡의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로 사업기간은 오는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도비 20억 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 30억 원, 군비 53억 원 등 총 103억 원에 달하며, 다목적 체육관과 댄스연습실, VR스포츠실, 체력단련장, 탁구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기념사에서 “어린이체육관은 발육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사업”이라며 “안전한 체육 활동과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몸도 마음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다양한 놀이공간 제공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험공간 활성화,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남용 군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쾌적하게 신체단련에 나설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체육관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의회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 김제시 생명사랑 실천가게 모니터링 실시

김제시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생명을 존중하는 자살 없는 건강한 김제 만들기’를 위해 3월 13일에서 17일까지 5일간 김제시 생명사랑 실천가게 58개소를 대상으로 자살 도우기에 대한 접근 차단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김제시 자살사망자 수는 2021년 36명에서 전년 대비 4명 증가했으며, 자살 도우기를 통한 사망 사고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내 자살위험 수단에 따른 안전망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제시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2017년부터 농약, 번

개탄, 끈 판매업소와 숙박업소 58개소를 생명사랑 실천가게로 지정하고 점주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및 올바른 판매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고, 이와 함께 번개탄 안전보관함, 일산화탄소 감지기 및 산소 호흡기를 보급하며 충동적인 자살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올해는 통계청 자살통계 지역특성 분석(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라 김제시 자살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관리하며 연 4회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생명사랑 실천가게 김○○ 사장님은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살 관련 물품

을 구입하려는 손님에 대해 유심히 살피고 김제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은 “생명사랑 실천가게 모니터링을 통해 점주들의 인식 개선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의의,연계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자살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김제시민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관련은 김제시보건소,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태기자

# 강한경제 전주, 수출기업에 물류비 지원

## 전주시, 2023년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기업당 최대 250만 원 지원

강한 경제도시를 만들고 있는 전주시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부담이 가중된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기업 모집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지원한 해상·항

공 운임비에서 범위를 확대해 올해는 내륙운송비도 추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전주시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제조업)으로, 유통·도소매·무역업과 지방세 체납 기업, 타기관 중복수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증빙서류를 갖춰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수출물류비 지원뿐만 아

니라 수출보험료와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초보기업 지원 등 해외판로 개척 및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심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지난해 경제위기 속 수출기업에 물류비를 신규로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었는데, 올해 역시 물류비를 지속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 나주시, 제78회 식목일 기념 '편백 3000주' 식재

## 문평면 국동리 소재 임야 2ha 나무심기 구슬땀



나주시가 제78회 식목일을 기념해 맑은 공기와 삶의 활력을 주는 소중한 산림 가꾸기에 나섰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16일 광주~무안간 고속도로와 인접한 문평면 국동리 소재 임야에서 '제78회 나주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행사에는 운병태 시장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 410여명과 국립나주숲체원,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나주시 산림조합, 임업후계자협회 등 지역 사회·기관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여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나고 목재 품질이 우수한 편백 3000주를 임야 2ha에 식재했다.

여기에 봄철 산불 예방과 쾌적한 산림 조성을 위한 쓰레기 수거 등 산지

정화활동을 병행하며 행사 의미를 더했다.

시는 민선 8기 바랄길 숲, 도시 숲 조성과 조림, 숲 가꾸기 등 생활권 녹지 공간 확충과 더불어 나무 심기-목재수확-활용에 걸친 지속가능한 목재 산업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방침이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나무심기는 어린 시절부터 참여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조림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며 "30년 후 다 자란 편백나무들이 고속도로변 경관 명소가 되고 나아가 사계절 맑은 공기를 내뿜는 쾌적한 산림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 전남도 무안국제공항, 아시아 3개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해외 관광객 유치·공항 활성화 기대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대상인 아시아 3개국 국민은 원래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해외 관광객 유치 및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현지 모집여행사를 통해 무안공항으로 입출국 시 사증 없이 15일간 전남뿐 아니라 광주, 전북, 제주까지 관광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제도 운영 기간은 2024년 3월 31일까지 1년이다.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23년 호남권 국제행사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광주비엔날레, 아데미마스터스대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등의 성공 개최와 무안국제공항의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해 8월 법무부에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을 건의해 반영된 것이다.

김영록 지사는 또 지난 2월 베트남의 관광시장을 초기에 선점하기 위해 나트랑에서 전남 관광설명회와 트래블마트를 열고, 베트남 관광객 1만여 명을 유치하는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남 여행상품 운영 업무협약을 했다.

전남도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가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세기 운항 관련 여행사, 항공사 등과도 협의 중이다.

또한 법무부(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와 함께 관광객

무단 이탈자 발생에 대비해 관계 기관 간 주어진 역할을 나누고 긴밀하게 협조할 방침이다. 지난 6일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에 대비해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전남도,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재외공관을 통해 등록한 현지 모집여행사는 단체관광객 모집 단계부터 여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중 허위 서류가 있는지 여부, 무단이탈 가능성을 성실하게 확인해 이탈 우려자 탐승 방지에 노력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전남도는 신청자 명단을 받아 입국자 동일 여부와 2차 허위서류 여부를 확인하는 국내 전담여행사를 관리한다. 법무부(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는 입국심사를 통해 부적격자 입국을 방지하고, 준법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단체관광객 출입국 수속 지원과 이탈 방지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무사증입국 제도로 전남을 찾는 동남아 관광객의 발길이 늘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전남도는 관광객을 유치할 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모집여행사를 발굴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입소문 판매(바이럴 마케팅)도 전개할 방침이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무안공항을 통한 해외 관광객 유치는 전남의 글로벌 브랜드 확립과 경제적 효과 제고, 국제선 운항 노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코로나 일상회복 시대 국제관광 재개에 따른 해외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 전남도-시군 전국체전 성공개최 협력 강화키로

## 시군 준비상황 보고회...속박·안전·교통·문화행사 등 논의

전라남도는 1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시군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어 속박, 안전, 교통, 환경정비, 문화행사 등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2008년 여수 개최 이후 15년 만에 전남에서 다시 열리는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체전 종목별 경기가 분산 개최되는 22개시군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각 실국, 사업본부, 도교육청, 도경찰청,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등과 1차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보고회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22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체전기획단장의 양대 체전 총괄보고에 이어 시군별 체전 주요 준비상황, 향후 실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속박, 안전, 성화 봉송 지원, 교통대책, 환경 정비, 체전 연계 문화행사 등 실질적 체전 준비를 위한 시군의 분야별 과제를 다뤘다.

또한 도민 자율참여를 통한 선수단 손님맞이 확대 분위기 조성, 성공 기념 사전 봉업 활동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전남도는 대회를 앞두고 참가 선수가 최상의 경기력을 갖출 수 있는 체육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 주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과 각종 체전경기장 개·보수를 하고 있다. 목포종합경기장은 공정을 83%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시설 신축 5개소, 개보수 51개소 등 총 56개소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개최를 위한 대회사 선정, 자원봉사단과 도민 서포터즈 모집 등 대회 운영 준비는 물론 체전과 함께 즐길 각종



문화행사와 관광콘텐츠 구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문금주 부지사는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도와 시군 간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준비상황 점검이 중요하다"며 "진심어린 손님맞이 준비로 국민감동체전, 안전한 체전이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으로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12개 시군 36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정해명/기자

# 장흥군, '2023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공모 선정

## 김성 군수 "장흥군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시대 열겠다"

장흥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3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했다.

'2023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전라남도 내 35개의 관광명소 가운데 3개소를 선정하여 노후된 관광시설과 프로그램을 보완·재생하는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는 장흥군이 남해안 대표 관광 명소 육성을 목표로 2007년부터 조성을 시작했다.

정남진 전망대, 테마수 공원, 불빛정원(야간경관조명), 갤러리 카페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해 왔으나 최근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장흥군은 '정남진 전망대'의 노후 시설을 개·보수함과 더불어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 통일 기원 열망을 담은 '통일기원탑'으로 재단장하여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남진 전망대를 둘러싼 테마수 공원은 봄이 오는 길목을 화사하게 밝



혀 꽃동산으로 만든다.

어린이 놀이공간과 예술공연장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광장을 조성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로 지친 현대인들의 심신을 달래주는 '웰니스 여행 코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허브로 기능하고 있는 갤러리카페는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예술 창작 및 전시·공연 공간을 확보

하여 문화예술복합공간인 '감성방앗간'으로 재단장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통일기원탑과 통일기원동산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달성해 장흥군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박재원/기자

# 광산구,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광주 광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 1인 가구의 범죄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1인 가구와 법정한부모가족(모자가족)에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산구 소재지를 뒀아 하며, 개인용 무선인터넷(wifi, 와이파이)이 설치된 가구여야 한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 추천자를 우선 선정하며, 자가 및 아파트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0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현관문 앞 움직임 감지하고 자동 녹화해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한 '스마트초인종' △도어락 외 이중 잠금 안전장치인 '현관문 보조키' △외부에서 문(창문)열림이 감지되면 연동된 스마트폰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문 열림 센서' △외부에서 강제로 창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창문 잠금장치'로 구성된 4종 세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여성들의 주거 불안감이 해소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여성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2023 광산구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신청기간 2023. 3.20(월) - 3.31(금)까지

안심홈세트 구성: 스마트초인종, 이중잠금장치, 문열림센서, 창문잠금장치

신청대상: 여성 1인 가구, 법정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 추천자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광산구청 여성정책과 ☎ 062-960-3805

# 해남군, 군민의 마음지킴이로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 은둔형 등 122개 위기가구 대상으로 자살 방지 우울증 선별검사 신속 추진

해남군은 우울증 조기발견을 통한 자살 예방을 위해 은둔형, 독거노인 등 위기가구 122가구를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위험도가 포함된 3~5월은 자살 위험 시기로,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 집중관리하기 위해 3월 한달간 신속히 진행하게 된다. 대상은 은둔형 위기가구 17명, 1인 가구 중장년층 42명, 65세 이상 독거노인 63명 등 총 122명이다.

특히 이번 선별검사를 통해 우울감이 높게 나타난 대상자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의 1:1 상담과 정신 전문요원 방문·전화 상담 등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원 및 유관기관 연계 의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조기발굴, 찾아가는 현장 방문 서비스를 강화해 자살예방과 자살고위험군 발굴에 최

선을 다하고 군민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 보건소에서는 청년, 중년, 노인,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우울·불안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도움이 필요한 군민은 주간에는 해남군보건소, 야간·주말·공휴일에는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정신건강 상담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다.

윤선애/기자

# 완도군, 올봄 대규모 행사·축제 대비 도로 정비 박차

완도군은 대규모 행사와 축제를 앞두고 많은 관광객 및 선수단 등이 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국도변 환경 정비를 실시한다.

완도에서는 오는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5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제62회 전남도민체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제31회 전남장애인체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제3회 전남 정월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이에 군은 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관문로인 국도 및 행사장 일일 도로를 대상으로 분야별 정비를 추진한다.

분야별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관문 시설 정비(대교 내 안전시설물 및 가로등 교체) ▲국도13호선(차선 도색 및 방초 매트 교체, 녹생도 보강 및 게비온 보수) ▲국도77호선(도로 재포장 및 차선도색, 안전시설물 교체) ▲국도22호선(마라톤 코스 도로 재포장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이다.

특히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청정완도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면 청소차,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을 투입해 겨울 제설 작업 등으로 지저분해진 도로를 청소하고, 각종 도로 시설물의 청결 상태 등을 집중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각종 행사와 축제 등 우리 군을 찾는 손님맞이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 데서 시작된다"면서 "군은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영욱/기자

# 강릉시,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으로 소멸위기 극복한다

### 2023년 해양수산정책에 227억 투입, 공모사업도 적극 추진

강릉시는 사계절 해양시대를 맞아 지속 가능한 수산업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바다와 어촌 자원을 관광 산업과 연계하여 활력과 행복이 넘치는 어촌 육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본예산보다 약 14% 증가한 227억 원을 해양수산 정책 관련 93개 사업에 투자하는 한편, 공모에 선정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쥐노래미 서식기반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살고 싶은 어촌, 안전한 어항 공간 조성을 위해 29개 사업에 110억 원을 투입해 어촌 지역주민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어업에만 의존하던 어촌 소득의 다변화를 꾀한다.

특히,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주민진입을 오리진항과 소돌항 일원 및

영진항 일원의 어항시설을 정비하고 있으며, 해양 레저 관광 체험 및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또한, 안인진항을 중심으로 생활플랫폼을 조성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관내 소규모 어항개발, 주변 정비 등에 집중하여 어촌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할 수 있는 어촌·관광 복합공간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수온도 상승 및 해양오염 등의 환경변화로 인한 어패류 산란, 고수온 피해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7개 사업에 71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어업인 경영안정 및 어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36개 사업에 45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어업용 면세유, 고효율 노후 기관·장비 교체, 어선원-어선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경우 상반기 내에 신속하게 집행하여



어획부진, 어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선진어업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해안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동시에, 관광객들도 머물고 싶은 어촌, 행복한 어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 원주시, '캠프 룬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박차!

### 국방부와 조기개방구역(183,598㎡) 사용 협의 완료

원주시가 캠프 룬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주시는 최근 캠프 룬 부지 조기개방구역에 대해 국방부와 사용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캠프 룬 문화체육공원은 334,897㎡ 부지에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문화시설과 수영장이 포함된 복합체육센터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기개방구역은 전체면적 중 183,598㎡이며, 오는 5월 중 착공에 들어간다.

해당 구역에는 국립전문과학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설이 포함돼 있어 캠

프 룬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단계별 추진에 단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기개방구역 사용 협의는 원주시의 지속적인 협의 노력과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낸 결실이다.

특히, 국방부는 시에서 요청한 지역 및 오염도가 미미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추진, 지난 1월 조기개방구역에 대한 정화사업을 완료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에게 환원함으로써 복원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강릉시, '치매환자등록' 통한 적극 관리 나선다

강릉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 환자 등록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치매는 예방과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치매환자등록을 통해 초기 단계에 빠른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완화시켜 치매 악화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병·의원과의 연계로 통해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치매안심센터 등록률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 호호물품 및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환자 센터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배회어르신 실종예방 지원, 맞춤형사례관리,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 록·설치 등 다양한 치매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강릉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9,575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치매 환자는 5,4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만식/기자

# 철원농특산물 판매장 '오늘의 농부' '철원삼합 할인전 진행'

철원군에서 생산한 신선 농특산물,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는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오늘의 농부'가 전국노래자랑 방영기념 할인전에 나선다.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오늘의 농부'에서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전국노래자랑 철원편 방영(3월 19일)을 맞이하여 철원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철원 콜포크 삼겹살과 신선한 고추냉이 잎 세트, 철원오대쌀 햅반으로 구성된 철원삼합세트를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휴전선 최전방 지역에서 생산되는 철원콜포크 삼겹살은 두루엘인증 받은 돼지고기로 일교차가 큰 철원지역에서 생산되어 탄탄하고 담백한 육질을 자랑한다. 또한 새콤하게 떠오르는 철원군의 특산물 고추냉이잎은 알싸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맛볼 수 있으며 여기에 명불허전 철원오대쌀로 만든 햅반까지 세트상품으로 기획되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쇼핑몰 이용 만원이상 주문시 배송비는 무료이며, 인터넷 주소창에 '오늘의 농부.kr'을 입력하면 사이트에서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도 알 수 있다.

농업유통과장(김재국)은 "전국노래자랑 철원군편 방영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민이 철원군의 우수한 오대쌀밥, 삼겹살, 고추냉이잎으로 구성된 철원삼합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세나/기자

# 태백시, 주거취약계층 대상 '이사비 지원 사업' 추진

태백시는 올해부터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사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고시원, 컨테이너, 여인숙 등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정상 거처로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기준(공공임대아파트 입주기준)을 충족하며 공공임대로 이주가 확정·선정된 자이다.

신청은 오는 연말까지 상시로 할 수 있으며, 이주 완료 후 또는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이사비용 영수증 또는 생필품 구매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전입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되며 이주비 4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올해 시범적으로



5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지원금이 소액이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라며,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앞으로도 지원대상 및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 홍천군, 도내 유일 펠렛형 입상미생물 농가들에게 큰 인기

홍천군은 농업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펠렛형 입상미생물을 생산하여 농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펠렛형 입상 미생물은 홍천군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으며, 상온에서 보관·활용이 편리하고 약취저감과 퇴비 부숙 등 효과가 탁월하여 1개월 전에 구매를 예약할 만큼 인기가 높다.

최근 5년간 농·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유용미생물의 수요가 100톤 이상

늘어나 군에서는 지난해 배양기 4대(6t)를 증설하고 유용미생물을 확대 보급해왔으며, 올해 800톤의 유용미생물(입상, 액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유용미생물은 뿌리 발육 촉진, 가스장애와 연작장해 개선, 축사 악취 제거, 가축 소화율 증진 등 효과가 있어 홍천군 농가들은 매년 미생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효과가 뚜렷하여 해마다 사용량이 늘고 있다.

또한 입상미생물은 시중제품보다 3분의 1 이상 저렴하게 판매되며 액상은 무료로 제공되어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크게 낮추고 있다.

문명선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용미생물 활용으로 농약비료 사용량 감소 및 농업경쟁력 절감을 도모하고,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 등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원주시, 개그맨 장동민, 원주시 홍보대사 위촉



원주시는 16일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개그맨 장동민(43세)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개그맨 장동민 씨는 타고난 입담꾼으로 '이거 MONEY', '세계 다크투어', '구해줘, 홈즈'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다.

결혼 전까지 원주에 전원주택을 지어 거주했으며, 지금은 부모님이 원

주에 살고 계신다. 장동민 씨는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원주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원주시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주시는 관계자는 "장동민 씨를 통해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고향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부!

# 나 주 시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세액공제, 담례품

지역생산자 농촌소득증대

나주시 기금사업

### 아산시 무역사절단 3년 만의 활동 재개... 동남아 진출 성과 얻었다

#### 4박 5일간 싱가포르, 베트남 호치민서 수출상담회 개최

아산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개척을 위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총 4박 5일간 싱가포르와 베트남에 '동남아 소비재 전략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의 파견으로, 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관내 중소기업과 현지 바이어의 1:1 매칭 수출상담회를 각국에서 개최했다.

(주)루엔팍, (주)티코퍼레이션, (주)인투시, (주)아로마뉴텍, (주)비티엔, (주)바이오시엠, (주)영타운에프에스 등 7개의 생활소비재 제조업체가 참여한 이번 무역사절단은 상담액 444만 달

러(83건) 및 계약추진액 130만 달러(68건)의 성과를 거뒀다.

이중 (주)비티엔은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전문 유통업체와 상담 현장에서 MOU를 체결했고, 일부 기업도 상담회 이후 현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추가 상담하는 등 성공적인 수출 계약을 이끌었다.

시는 KOTRA 현지 무역관을 통해 참여기업이 바이어와 계속 소통하고 현지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속 관리할 예정이며, 무역사절단 이외에도 다양한 수출육성사업을 시행해 관내 수출기업의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원호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방문... "일류과학도시 함께 만들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17일 정부 출연 연구소와 지속적인 협력과 상생관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찾았다.

이날 이 시장은 간담회 앞서 생명연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선정 축하 인사를 받았으며, 기관 소개, 건의사항과 발전방향 논의, 연구시설 투어 순으로 진행했다.

이 시장은 "대전하면 과학수도인데 얼마나 출연연과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었는지와 일부 노력은 있었지만 사실상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지 못했다."며 "지난 6개월은 시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했다면 앞으로는 출연연 전문가를 방문해 직접 배우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대통령령에서 대전을 제일 먼저 우주산업 중심으로 키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저 또한 대전에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그 결과로 대전의 대규모 산업단지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얻어간 것이다."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생명연은 국내 유일한 바이오 연구기관으로 사실상 주도를 하고 있지만 향후 세계적인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이 필요하다면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 도시를 세계적인 일류도시로 서울과 수도권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도시로 함께 만드는 것이 소망이라며 협력과 도움을 당부한다." 말했다.

이에 김장성 원장은 "시장님이 과학 기술을 통해서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대전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생명연 관계자는 "현재 대전 본원의 과밀화로 바이오 시설부지가 부족하다."며 "특구법상 제한된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을 위한 제도적인 검토와 지원 방안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난 2월 대통령령 카이스트 방문 때 대덕특구 건물 7층 제한 해제를 요청 드렸다."며 "현재 특구 총면적에 비해 공간구성이 비효율적이라며 보안, 안전을 제외한 연구시설은 고층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생명연은 "실무 취업 연계형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과 전국 최초 우주 바이오 선도도시 실현을 위한 우주바이오산업 테스트 베드 구축이 필요하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바이오산업은 시 4대 전략사업이라며 바이오 친화 도시 대전을 하고 있지만 향후 세계적인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이 시장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합성생물학연구센터를 둘러봤다.

김원호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 "지역대학 경쟁력 높이는데 함께 할 것"

#### 김 지사, 도내 28개 지역대학 총·학장, 임직원들과 간담회 갖고 지원 및 육성 방안 등 논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역대학의 위기극복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28개 대학 총·학장, 임직원들과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관련 지방이양' 등과 관련 충남의 고등교육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안청취 및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정부는 '지방대학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의 행·재정 지원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역 발전과 연계한 대학 육성으로 지방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인재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역대학은 이제 생존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며 "이제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 대학이 함께 고등교육의 새판을 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정과제 실행 일환으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시범지역 미선정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켰다.



김 지사는 "자체적으로 고등교육정책 권한 지방이양을 준비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협업체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라이즈 시범지역에 충남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도 차원에서 교육부 기조에 맞춰 적극 대응하겠다는 지사의 의지가 담겼다.

글로벌대학 지정과 관련해서도 지

역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음을 알렸다.

정부는 올해 최대 10개교를 비롯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총 30개의 글로벌대학을 지정할 계획으로, 선정대학에는 5년간 1000억 원 및 규제특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교육부는 4월 중 시행될 글로벌대학 선정기준에 라이즈 시범지역에 우대 가능 의견을 2월에 공표한 바 있으

며, 이는 시범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충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글로벌대학 지정과 관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적극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지역대학 관계자들은 △도·대학·산업·청년계간 소통 창구 △반도체 등 주력 산업 외에도 복지·의료 등 강소학과 중심의 지원 정책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도의 적극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충남대학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 수립 시 건의 내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대학이 지역발전엔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학관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대학에서도 발전방안에 대한 대학의 비전 및 전략을 지자체와 적극 공유해 달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 천안시, 대통령 공약 "국립치의학연구원 반드시 설립"

#### "대한민국 치의학 미래, 새로운 도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추진위원회 출범

천안시와 충청남도는 17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치과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대한민국 치의학 발전을 견인할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천안) 충남 천안 설립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치과 의료산업을 이끌어갈 킥스타터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목표로 천안시와 충남도, 정계, 대학, 학계, 산업계를 망라한 60여 명으로 구성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공동추진위원장인 김태흠 충남도지사,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해 시·도 의원, 박완주·강훈식·이정문 국회의원, 김수복 단국대학교 총장,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주) 대표이사, 이창주 충남치과대학장 등 치의학계 관계자들이 추진위원으로 위촉돼 발대식에 참석했다.

발대식은 추진위원 소개, 인사말씀, 내빈축사, 단국대 치대 연구실장의 설립 필요성 발표, 발대식 세리머니 등을 진행했다.

그동안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 천안 설립이 '제20대 윤석열 정부 지역공약에 반영'됨에 따라 충남도·단국대·오스템임플란트·충남치과대학과 공동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2월에는 충남도와 대한치과의사 협회가 설립추진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시는 설립에 필요한 타당성 연구나 부지, 인프라 등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이동이 쉬운 KTX역에서 가까운 천안아산 KTX역 세련 R&D집적지구 내 연구원 부지매



입을 완료했으며, 단국대 치과대학과 오스템임플란트가 위치해 우수한 인력과 연구개발 지원이 가능하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과 치과병원 외에도 해외우수연구기관인 미국 베크만 광의료기기 연구센터, 이스라엘 와이즈만-순천향조직재생연구센터, 영국 UCL이스트만 치의학연구소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국내·외 치의학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의 처리 촉구, 충남 천안 설립 학술 포럼을 비롯한 국회의원회와 치의학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범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천안홍타령축축제, K-컬처 박람회 등 다양한 곳에서 캠페인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첨단산업의 집결지 천안시는 치의학 관련 높은 인피라와 우수한 지리적 접근성으로 비교우위에 있으므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가 아닌 선정으로 확정돼야 한다"며, "천안시가 첨단 치의학 산업의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천안시민을 넘어 220만 충남도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청주시 오늘은! 착한가격업소 '이용한 Day'

#### 공직자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 운영을 통한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청주시가 3월 13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4주간을 2023년 상반기 공직자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으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고물가 상황에서 비싸진 원재료 가격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착한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함이다. 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 동안 부서별 1회 이상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업소 홍보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SNS 홍보 및 협소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 경제정책과 직원 15명은 17일 내덕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의 착한가격업소 '소문난 올갱



이해장국'을 이용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의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직자로서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우선순위에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업소이다. 3월 기준 청주시에 75개소가 운영 중이며 업소현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정화기자

### 청주시립미술관 오창전시관 '보이지 않는 도시들'展 운영

청주시립미술관 오창전시관이 올해 첫 기획전 '보이지 않는 도시들'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시회는 오는 5월 14일까지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청주시립미술관 오창전시관에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 3년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겪으면서, 해외 이문난 관광지보다는 국내 도시들을 여행하며 우리 주변의 도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 시작했다.

원범식 작가는 세계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건축물을 촬영하고 건축물을 콜라주하는 '건축조각 (ARCHISCUPTURE)'이라 불리는 작업을 통해 건축 형태를 지닌 조각품을 사진에 담은 듯한 독특한 작품을 만든다.

여러 건축양식을 비롯해 구조물에 담긴 시간의 흔적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존, 문화, 역사를 응축한 콜라주이자, 작가가 세상을 수집, 분류, 저장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청주나 런던 등 세계 여러 도시의 이미지를 조합해 구체화한 원 작가의 작품 14점을 감상할 수 있다.

원 작가가 관람객에게 도시의 이미지, 건축적 유토피아를 제시한다면 임준영 작가는 'Like Water(흐르는 물처럼)' 작업을 통해 도시 안에서 끊임 없이 발달되는 사람들의 에너지 흐르는 물로 표현해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사진으로 담는다.

임 작가는 거대하지만 건조하고 매끈한 도시의 이미지와 상반된 '물'의 이미지를 사용해 거대도시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력과 활력을 보여준다.

전시회를 방문하면 도시와 물이라는 두 요소의 조화를 통해 생명의 역동성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임 작가의 작품 10점을 만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시를 통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도시 혹은 언젠가 새롭게 탐험하게 될 도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이천고, 전국 고교 자율주행 경진대회 대상 수상

## 2023년 구글국제인증공지능(TensorFlow Developer Certificate) 국제자격증 6명 합격

경기도 이천고등학교는 교육부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 미래차전환 부품사업단과 미래자동차교육협회가 공동 주관한 '2023 전국 고교 자율주행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0개 대학(고려대 외 9개) 간 공유-협업을 통한 미래 자동차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전국 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온라인 자율주행 경진대회 운영 프로그램으로 예선을 실시하고, 2월 14일 전국 12개 고교가 최종 올라와 영남대학교에서 최종 본선을 실시하여 이천고팀이 전국 고교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천고의 우수한 성과의 기반에는 교내 창의공학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IoT, 인공지능, 자율주행 분야에 목표를 두고 진로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전문성과 창의성이 높은 창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한 결실을 얻었다.



김석범 지도교사는 "자율주행의 최적의 속도와 경로점을 이용한 구현 방법이 어려웠지만, 학생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한 끊임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 제시된 자율주행 지도를 최소 시간에 완벽하게 주행을 돌파했다. 창의적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도전 과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더 높은 성취감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천고는 3월 5일 구글 국제인증 인공지능 텐서플로우 자격증(TensorFlow Developer Certificate) 시험에서 6명이 합격

했다. 자격증 취득으로 학생들이 인공지능 분야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진로와 진학을 준비하면서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여 높은 전문성을 입증했다.

한편, 이천고의 인공지능 구글 국제개발자 자격증 과정은 올해도 교내 창의공학아카데미 프로그램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를 발견하고 공학적 전문성을 높여 전문적 인공지능 개발자의 소양을 갖추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윤/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 대신협 선정 자치분권대상 수상

## 균특사업 4년 연장·지방이양사업 5년 보전 등 재정분권 역할 공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가 개최한 제4회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자치분권 대상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조기 실현과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자치분권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한 단체장이나 정치인에게 수여한다.

김영록 지사는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3년간만 한시 보전할 예정이었던 균특회계 전환사업(3조 6천억 원)의 연장을 끈질기게 건의하고 설득해 2026년까지 4년 연장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정부의 2단계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을 최소 5년 이상 보전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관철했다. 여기에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신설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들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옹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비전을 선포, 미래 100년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도민행복시책 등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코로나19와 고유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전략 마련과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2022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한 민선 8기 7개월 동안 84개 기업 7조 7천억 원의 투자협약을 하는 등 민간 주도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시동을 걸었다.

에너지 대전환시대를 맞아 신안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회장 김중식) 주최로 열린 제4회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8.2GW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에너지 허브로서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개교한 한전에너지공대는 개교 2년째를 맞아 세계 톱10 공대의 꿈을 키우면서 순항하고 있다.

또한 국가 우주산업벨트의 한 축이 될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지정, 면역치료제 연구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면역치료 원스톱 플랫폼 구축의 초석인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 건립, 친환경 선박산업 중심의 스마트·친환경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서남권 산단대개조 선정 등 전남 100년을 책임질 첨단전략산업 동력을 확보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천원 여객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등 법과 제도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위한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도민 행복을 증진하고 있으며, 이같은 우

수 시책을 국가정책으로 확산시키는 성과도 거뒀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이 잘 돼야 나라가 살기 때문에 역대 정부가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방시대 등을 강조해 왔으나 중앙정부는 권한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지방시대로의 대전환을 전남도가 더 역할을 하도록 발 벗고 뛰겠다"고 강조했다.

제1회 자치분권 대상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2회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3회는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수상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는 지난 2003년 출범해 전국 29개 유력 지역 일간지를 회원으로 둔 지역 언론 최대 단체다. 지역신문발전기금특별법의 상시법화 촉구 및 지방자치 분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해명/기자

# 이미정 한국웃음치료연구소 강사, 나주고향사랑기부제 동참

## "나주는 제 2의 고향, 큰 애정 갖고 있어" 최고액 500만원 기탁

전라남도 나주시는 한국웃음치료연구소 강사로 활동 중인 이미정 씨가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미정 씨는 "나주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제 2의 고향으로 생각할 만큼 평소 큰 애정을 갖고 있다"며 "나주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실제로 이 씨는 남편을 노동리에 자신의 두 번째 집을 마련하는 등 나주에 남다른 애정을 가져왔다.

지난 해 12월에는 나주시 공직자 마인드 함양교육 강사로 초청돼 '나의 적극 행정이 나주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공직자의 친절, 적극, 혁신행정에 대한 강연을 펼치기도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 강사님의 제2의 고향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며 "앞으로도 긍정 에너지로 웃음과 희망을



전하는 강사로 승승장구하시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향

사랑'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납부 및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한 대면 납부로 참여할 수 있다.

김영안/기자

# 서울시민대학, 제5회 명예시민학위수여식 16일 개최... 시민학사·석사 202명 배출

## 시민학사 157명, 시민석사 45명 배출...자원봉사자·서울시민기자 첫 학위 수여 눈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민대학은 제5회 명예시민학위수여식을 16일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미래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시민학사 157명, 시민석사 45명으로 총 202명의 서울시민이 영예로운 명예시민학위를 수여받았다.

명예시민학위는 서울시민대학의 정규강좌를 일정시간 이수하고 졸업 연구를 수행한 학습자에게 수여하는 서울시민대학 명의 비공인 학위다. 서울시민대학은 학습시간 100시간 이상을 수강한 학습자에게 '시민학사'를, 학사를 취득한 후 학습시간 100시간을 추가로 이수하고 졸업 연구를 승인받은 학습자에게 '시민석사'를 수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 자원봉사자 31명, 서울시민기자 32명도 시민학사학위를 수여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네트워크형 명예시민학위제를 통해 '시민기자 아카데미' 등 활동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현장 취재, 사회봉사 등

의 활동 경험을 학습 시간으로 인정받아 시민학사 학위라는 결실을 맺었다.

서울시민대학은 지난해부터 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 및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시민 활동 분야에서의 경험을 학습 시간으로 인정하는 네트워크형 명예시민학위제를 운영해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 경로를 지원한다.

시민석사과정 연구 결과물을 살펴보면, 학습자들이 실제 지역사회 현장에서의 경험을 활용해 직접 발로 뛰며 만든 경험 중심 결과물이 많다. 경희궁을 연구하며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진 경희궁 이야기'를 비롯해 '강남구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경험 사례' '이것이 리빙팩이다', '청소년 봉사활동 분석을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등 다채로운 공동·개인 연구 결과물이 나왔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우수한 연구 결과를 낸 학습자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올해 시민석사상 1명 남기소(81세)씨는 '지금도 안 늦어'라는 자전

에세이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문제(시인·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교수) 지도교수는 "결혼, 자녀 양육법과 노년기의 건강관리, 노년의 사회적 활동, 후손에 대한 당부 등 인생에 대한 철학을 담은 남기소 학습자의 연구 결과물은 자기 성찰을 충실히 하지 못하던 우리 노년 사회의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서울시민대학 공식 유튜브 채널(채널명 "서울시민대학")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했고, 시민석사들의 연구 결과물은 서울시민대학 본부캠퍼스(종로구 송월길 52) 도서관에 비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희승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서울시민대학은 서울시민을 위한 큰 배움터로써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강좌를 운영할 것"이라며, "체계화된 시민석사·박사과정으로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 전남도, 고병일 광주은행장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릴레이 동참

## "취지 홍보참여 확산 앞장"…임직원과 함께 기부도 잇따라

전라남도는 광주은행 임직원의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병일 은행장이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응원 릴레이 주자로 나섰다고 밝혔다.

고병일 은행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광주은행이 앞장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홍보하고 기부 참여가 확산되도록 힘껏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고병일 은행장과 임직원은 지난 3일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행을 맞아

동참 캠페인을 펼쳤으며 임직원의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부하고 받은 담례품을 사회복지시설에 다시 기부하기로 하는 등 나눔과 지역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실제로 광주·전남 지자체 총 26곳에 고병일 은행장이 개인적으로 500만 원, 광주은행 임원들이 총 1천700만 원을 기부했다.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 카드 이용금액 0.2%를 고객이 선택한 지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고향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광주·전남 사랑카드'를 출시, 지난해 1억 3천

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또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한 '남도투어적금' 상품을 출시하는 등 전남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30% 이내 담례품이 제공되며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정해명/기자

# 영광군-함평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동참

## 영광군 환경과 ↔ 함평군 환경관리과, 품앗이 기부

영광군 환경과 직원들이 함평군 환경관리과 직원들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기부에 동참했다.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영광군 환경과와 함평군 환경관리과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기부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이에 양 기관에 기부 동참한 직원은 각각 17명이 10만 원씩 총 170만 원으로 상호 간 교차 기부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담례품도 제공받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동참해 주신 함평군 환경관리과 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번 상호 기부 동참을 통해 지

역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하며, 양 기관은 상호협력과 소통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 방법은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으로, 오프라인은 NH농협 대면접수 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이동순/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한준 LH사장,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문제 논의

국가산단후보지로 남사이동 215만평 선정된 다음날 만나 "성공적 조성" 의기투합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 남사·이동을 215만평이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16일 오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만나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시장과 이 사장이 논의하는 자리엔 용인특례시 류광열 제1부시장, 황준기 제2부시장,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도 함께 했다.

이상일 시장과 이한준 사장은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크리스터 조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용인특례시 남사·이동이 선정된 만큼 국가산단지 조성작업이 신속열 대통령께서 강조한 '속도'를 내며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와 LH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공동 노력을 기울이자"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와 LH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삼성전자, 한국전력, 한국수자원 공사 등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할 기관들의 협업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만큼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에는 SK하이닉스가 처인구 원삼면에 126만평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남사·이동에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



가산단이 조성될 것이므로 앞으로 두 지역에서 일할 근로자 등이 생활할 수 있는 배후도시 문제도 연구해야 한다"면서 "LH가 긴 안목에서 용인 발전을 위한 진지한 검토를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준 사장은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 LH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일을 성공적으로 진척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혜영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 분야 R&D 쇼케이스 개최

바이오 분야 중점기술의 연구 성과가 한자리에 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7일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바이오 분야 R&D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과기정통부 소관 중점기술의 사업(연구) 성과를 국민과 언론에 알리고, 현장 소통·공감을 통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바이오 분야를 시작으로 금년말까지 분야별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계속 개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R&D 쇼케이스' 시리즈의 첫 번째 분야인 바이오는 국민생명·건강은 물론 코로나19 사례에서 보듯 국가 안보 관점에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경제적·산업적 잠재력을 큰 분야로 작년 10월 정부 차원에서 집중·육성하기로 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첨단바이오' 분야가 선정된 바도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성균관대학교의 '콘크리트 균열 자기치유 미생물 발굴', 고려대학교의 '약물전달과 뇌신호 측정'을 위한 초경량 무선 브레

인칩', 이오폐로우의 '인술린 의존성 당뇨병인을 위한 웨어러블 인술린 자동 주입시스템' 및 아이센스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소형 연속혈당측정기' 등 주요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가노이드(미니장기) 실험 관찰'과 한국뇌연구원 '뇌파로 조정하는 드론' 등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오가노이드 기술을 이용한 중추신경 손상 모델과 이를 치료할 수 있는 후보물질 발굴 기술을 개발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선용 교수와 초소형 크리스퍼 유전자기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제약회사와 최대 3.5억 달러 규모의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용삼 박사의 특별 강연도 개최된다.

더불어, 일반국민들에게 쇼케이스에서 소개되는 바이오 분야 상식과 주요 연구성과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바이오 분야와 관련한 퀴즈행사를 통해, 갤럭시 워치 등의 상품을 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가노이드 관찰

급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구체적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바이오 분야 주요 연구성과 공유·활용 기회를 확대하여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협력적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영광군, EV 트렌드 코리아 참가 2023 e-모빌리티 엑스포 홍보

영광군은 지난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 2023'에 참가해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홍보관을 운영했다.

현대, 기아, 볼보 자동차 등 150개사 450부스로 구성된 'EV 트렌드 코리아'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코엑스, 한국전지산업협회가 주관하며 서울시가 후원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영광군은 엑스포 홍보영상을 상영하며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전시회에 참가한 e-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참가유치 할

등을 활발하게 펼쳤다.

한편,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는 30개국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e-모빌리티 전시·판매 및 시승체험, 수출상담회, 학술행사 등 다양한 스마트 e-모빌리티 자작 경진대회, 미래인재 과학축전, 메이커펀티비, 자율주행·드론체험,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가 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순기자



### 통영시, '청년 시간제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통영시는 취업준비생 및 전일제 일자리가 부담스러운 취업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사업장에 시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다양화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청년 시간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시간제 일자리 지원 사업'은 사업체에 청년 시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와 일자리를 찾는 청년 시간제 근로자의 신규 고용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청년 시간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시, 인건비를 월50만원 한도로 최대 5개월간 지원해준다. 통영시는 10개소에 각 1명씩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통영시에 사업장 주소가 있는 사업장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시급 준수 사업장 ▲전월 말(2월 28일) 기준, 상시근로

자 5인 미만으로 청년 시간제 근로자(만18세~39세 이하)를 신규 고용 가능한 사업장이다.

신청기간은 3월 17일부터 모집 완료 시까지이며 지원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은 통영시청 1층사 기획예산실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영준기자



### 충청북도·아마존, 지역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충북, 중소기업 100개사 아마존 입점 지원

충북도가 아마존과 협업하여 충북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와 아마존은 해외 진출 의지가 있는 충북 중소기업 100개사에 대하여 아마존 입점 및 활용전략 교육, 아마존 전담 매니저의 입점 단계별 일대일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로컬 셀러 발굴 및 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아마존,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와 함께 이번 달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선, 아마존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입점에 성공한 기업에 인증·마케팅·물류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200만 원 규모의 입점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존 입점기업 중에서도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10개사 선정하여, 150만 원 규모의 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규격인증 취득·수출 마케팅·물류비 등 40억 원 규모, 7개의 일부 수출지원 시책사업을 사업

참여기업에 주기별 맞춤형으로 안내하여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사업 참여기업의 매출액, 성장 가능성 등을 아마존과 함께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을 '슈퍼스타-충북 셀러'로 선정, 과감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충청북도는 수출 의지와 혁신 역량을 갖춘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강력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리 도의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아마존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해 글로벌 브랜드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와 아마존은 지난 14일, 도내 중소·중견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로컬 셀러 발굴 및 성장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사업 참가 신청접수는 3월 28일(화)까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 cbgms.chungbuk.go.kr)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고정화기자

**2023 충청북도 X 아마존 코리아 로컬 셀러 발굴 및 성장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 모집대상** 도내 중소기업 100개사 정도 (아마존 입점 희망하거나, 기획 및 입점한 기업)
- 지원규모** 도내 중소기업 50개사 이상 (신규 40개사 이상, 기존 10개사)
- 신청기간** 2023. 3. 14(화) ~ 3. 28(화)
- 지원내용**
  - 교육 및 입점 컨설팅 지원 (신규 발굴기업) 아마존 입점 및 활용 전략 교육 (3월 2~3(화)~1(수)) (기존 입점기업) 아마존 활용 전략 교육 (3월 2~3(화)~1(수)) (신규 발굴기업) 아마존 마케팅 전략 교육 (3월 2~3(화)~1(수))
  - 신규 발굴기업 지원 (신규) 아마존 입점 지원 (신규) 도내 중소기업 40개사 이상 (신규) 아마존 마케팅 전략 교육 (신규) 아마존 마케팅 전략 교육 (신규) 아마존 마케팅 전략 교육 (신규) 아마존 마케팅 전략 교육 (신규)
  - 기존 입점기업 지원 (신규) 아마존 입점 지원 (기존) 도내 중소기업 10개사 이상 (신규) 아마존 마케팅 전략 교육 (기존) 아마존 마케팅 전략 교육 (기존) 아마존 마케팅 전략 교육 (기존)
  - 무역보험지원사업 시책 연계 지원 (신규) 아마존 입점 지원 (신규) 아마존 마케팅 전략 교육 (신규) 아마존 마케팅 전략 교육 (신규) 아마존 마케팅 전략 교육 (신규)

### 경남 고성 기능성 '갈색 가바쌀', 미국(LA) 수출!

뇌 활성화 물질 많아 호평, 올해 200t 목표



고성군의 기능성 쌀인 '갈색 가바쌀'이 3월 16일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이날 선적된 '갈색 가바쌀' 16t(3만 674달러)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향한다.

경남 고성지역 농민들과 계약재배(141ha)를 통해 생산된 기능성 '갈색 가바쌀'은 영남대학교 산학 연구팀이 개발한 '금탑' 품종으로, 가바(GABA) 성분이 다량 함유된 것이 특징이다. 뇌 활성화 물질인 GABA(Gamma Aminobutyric Acid, 뇌세포 대사가

능 촉진 신경안정물질) 성분이 많고, 신장 기능을 촉진해 에너지소비를 돕고 혈당과 효소를 정상화해 당뇨·비만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받고 있다.

'갈색 가바쌀'의 미국 수출 총괄은 ㈜두보(사장 허태성)에서 한다. ㈜두보는 2014년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한 이래 매년 안정적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올해도 벌써 쌀 수출을 통해 총 67톤, 12만 8,593달러(약 1억 5,877만 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최광용기자

### 2023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신청, 모집 혁신적 사회적기업을 꿈꾸는 창업가 모여라!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고양시 내에서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기업인)을 대상으로 창업 공간과 교육, 컨설팅, 시제품 제작비 등을 지원한다.

센터는 '2023년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을 고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와 센터 블로그 등을 통해 공모 중이며, 오는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본 사업은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사업에 선정되면 창업공간 지원(1년), 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과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며, 고양시 소재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회적기업 창업이나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5년 이내)관심 기업은 센터 블로그 게시판 등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기한 내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덕양구 고양대로 1393, 5층)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영기기자

**2023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미세분부추는 힘 고양

**신청기간** 2023. 3. 14 ~ 3. 31

**모집대상**

- 2023. 3. 27(목) ~ 3. 31(일) 18:00까지
- 사업장소재지: 고양시(4읍 10면 11.1천 11.1천 11.1천 11.1천)
-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공고) 게시판
- 신청대상: 2023년 2월 28일(수) 기준, 5년 이내(2018년 2월 28일 기준)

**지원내용**

- 사업장: 고양시내 20여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 교육: 사회적기업 창업 교육 (10시간)
- 컨설팅: 사회적기업 컨설팅 (10시간)
- 시제품: 사회적기업 시제품 제작비 (100만원)
- 마케팅: 사회적기업 마케팅 지원 (100만원)
- 교육: 사회적기업 창업 교육 (10시간)
- 컨설팅: 사회적기업 컨설팅 (10시간)
- 시제품: 사회적기업 시제품 제작비 (100만원)
- 마케팅: 사회적기업 마케팅 지원 (100만원)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 5년 이내(2018년 2월 28일 기준)
- 사업장: 고양시내 20여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 교육: 사회적기업 창업 교육 (10시간)
- 컨설팅: 사회적기업 컨설팅 (10시간)
- 시제품: 사회적기업 시제품 제작비 (100만원)
- 마케팅: 사회적기업 마케팅 지원 (100만원)

**문의처**

-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전화: 031-960-7071
- 팩스: 031-960-7072
- 이메일: social@goyang.go.kr



김광열 영덕군수, “늘 군민만 바라보고 군민만 섬기는 군수가 되겠다”  
- 모든 공을 예하 직원들에게 돌리는 진정한 리더십을 갖춘 군수

# 김광열 영덕군수, 인터뷰

김광열 영덕군수는 1960년 영덕에서 태어나 2018년 영덕군청 기획감사실장을 끝으로 40여 년을 영덕에서 살아 온 지역 현안을 그 누구보다 꿰뚫어 보고 있다. 그는 현안 과제를 풀어가는데는 데는 주저함이 없을 정도로 거침없는 하이킥식 업무를 추진한다. 잘하는 직원에게는 아낌없는 찬사를, 잘못된 직원에게는 사정없는 질책을 하는 공·사가 분명한 전형적인 기획통으로 매사 빈틈이 없으며, 사람 가까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군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김 군수는 퇴임 후, 지난 2021년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지난해 1월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

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통합본부 국민희망위원회 영덕군선대본부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한 공로로 국민의힘 영덕군수후보로 공천, 민선8기 영덕군수선거에서 80.59%의 놀라운 득표율로 당선된 뛰어난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는 지난해 7월 당선 소감에서 “갈등과 반목을 넘어 오직 군민 화합과 영덕의 번영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 “민자 사업·기업 유치로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스마트 관광 도시를 조성, 어려움에 빠진 영덕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의 영덕을 반드시 지키겠다.” “편견과 사심을 버리고, 더욱 낮은 자세

로 언제나 청정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군민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군수가 되겠다”고 천명한 이후 오직 한길 독심으로 걸어 오고 있다.

이에 본지 취재진은 집권 8개월을 넘어 보다 업그레이드된 영덕군 건설을 위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는 김광열 영덕군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덕군의 청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그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거둔 성과를 보면 타시군의 귀감이 되고도 남는다. 지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시군평가 대상, 지역문화재활용사업 평가 부문 문화재청장상, 그리고 대한민국 에너지

지효율·친환경대상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을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덕」을 민선8기 군정가치에 두고, 군정을 펼쳐 오고 있다.

그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예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며, 특히 논공행상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한 리더십을 가진 지자체장으로서 사무실보다 늘 영덕군민들의 삶이 현장인 현장 중심의 군정 활동을 펼쳐 각계각층의 군민들을 물론, 출향민들로부터 ‘일 잘하는 군수’, ‘군민을 섬김 줄 아는 군수’, ‘군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군수’란 평가를 받고 있다.

### [ 김광열 영덕군수와의 인터뷰 ]

윤군수 총괄본부장 : 안녕하십니까? 문화매일신문의 경북·대구 총괄본부장 윤군수 기자입니다.

Q : 코로나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군민들로부터 무한 신뢰와 존경을 받으시며 군을 이끌고 계시는 군수님을 뵙게 돼, 영광입니다. 먼저 영덕군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해주십시오.

김광열 영덕군수 : 네! 안녕하십니까? 영덕군수 김광열입니다. 군민 여러분! 벌써 춘삼월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은 하나같이 군민을 섬기고, 군민께 봉사하는 군민의 공직자로서 우리군의 무한한 번영과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Q : 윤군수 대구·경북총괄본부장. A : 김광열 영덕군수로 같음하며, 존칭은 생략)

Q : 출범한 지 8개월이 흘렀다. 영덕군수로서 지난 8개월간의 성과에 말씀해 달라. A : 임직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앞으로 할 일이 더 태산같는데, 성과를 나열한다는 건 사치라고 사료된다. 다만, 임직 동안 실현하고자 한 큰 그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를 지자체에 접목해보면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군민이 행복해야만, 그래서 머물러 살고 싶어야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살고 있던 주민이 불행하다고 떠나고 싶는데 누구에게 와서 살라고 할까?

Q : 목표는 분명하나 실현하는 조건은 어렵고 복잡하다. 하지만 우선적인 것은 군민의 행복한 삶을 지향하기 위해선 물질적 토대가 선행해야 한다. 안정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국비와 도비를 확보, 건전재정을 유지하며,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활발한 민간투자도 이끌어 내야 하기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희망적인 것이 우리 군의 행정력은 각종 공모 사업에 선정될 만큼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 국비 포함 1,03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민간투자 또한 취임 후부터 보더라도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해 2,000억 원의 민자 사업이 이미 진행되거나 체결

돼,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볼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Q : 향후 영덕군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 달라.

A :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2023년을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덕’을 민선8기 군정가치에 두고, 이를 위한 5대 군정목표를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색다른 특이 문화관광 ▲갈수록 행복 복지 ▲웃음꽃이 피는 농산어촌 ▲마을 나누는 소통 행정 등을 실현하는데 두고 영덕군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Q : 영덕군을 바르게 이끌어 가려면 양계 축인 영덕군청과 영덕군의회 간 상호 원활한 소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군의회와는 어떤 자세로 소통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달라.

A : 의회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되면 군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을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갈 것이기에 의회와 주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격의 없이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선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아울러 군이 추진하려는 일은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군의 미래에 희망이 되는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의회와 항시 서로 소통하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

Q : 이번엔 개최한 영덕대개 축제제는 기본적인 룰을 깨고 변화를 추구해 개최지를 전격적으로 삼사해상공원으로 옮겨 시행, 축제 결과 우려를 완전히 불식하고 관광객이 2배로 늘어나는 등 대성공을 거둔 축제로 자리매김 됐다. 이는 전적으로 군수님의 해안이 낳은 결과로 아는데...

A : 아니다. 축제위원회의 강력한 추진력과 시행으로 이뤄진 것이다. 게다가, 강구항은 일상적으로도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기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점이 아쉬웠다. 이에 이번 축제는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 삼사해상공원에 축제무대를 꾸며 많은 분이 이용하도록 조치 했다. 처음엔 적잖은 분들이 장소 변경에 우려를 표했지만, 이번 축제 결과 오히려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만족도도

높아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영덕군은 보다 많은 관광객이 이곳 영덕군을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관광개발을 통해 머물며 힐링하는 영덕 특유의 관광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

Q : 영덕군이 안고 있는 지역 최대 현안은 그 무엇보다 영덕군의 소멸위기 극복이 관건으로 보인다. 갈수록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전국 통계를 보면, 2070년대 대한민국 인구가 3800만명, 2700년 1800만명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대한민국이 소멸될 위기라고 한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인구증가책인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말씀해 달라.

A : 모든 지자체가 이 문제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귀농·귀촌 특별 정착금 지원, 신혼부부 특별 장려금 지급, 자녀 특별수당 지급, 유아 보육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모든 지자체에서 큰 차이 없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구감소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 그 해법을 찾기가 어렵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은 구조적인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일 뿐, 이를 역전하기 위해선 핵심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일자리 창출」은 군이 경상북도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시책」 부문 우수상을 받은 만큼 이 부분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 일자리 창출 전략은 3가지이다.

▲모사업 선정으로 국비를 확보, 공공영역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국립해양생물 종합센터 조성 등 사업비가 확보돼 추진되고 있고, 향후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 스마트 수상가공 종합단지, 해양 심해바이오뱅크 등의 사업을 따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민간투자자와 연계한 자체 활력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극대화이다. 민간투자가 결정돼 이미 착공에 들어간 총사업비 1,345억원의 대규모 숙박시설 바이노스 호텔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연계, MOU 체결로 660억원이 투자되는 FS국제축구테마파크와 블루로드, 테마로드를 연계, 자

유시장 경제에서 파생된 일자리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끌어 추가 일자리를 마련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창업 육성 사업 등 자체적인 시책으로 일자리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선 군민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해 지역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사회 진출과 공동체 화합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군민 행복과 거주자의 가치를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

다. ▲대규모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으로, 104억원의 강구건강활력센터와 147억원의 예주행복드림센터가 올해 착공하게 된다.

▲영덕읍의 미래인재 양생관은 실시설계를 완료해 곧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 400억원, 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477억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300억원 등도 공모에 당선돼 국비를 확보했다.

따라서 이런 사업들은 군민의 생활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큰 사업인 만큼 행정력을 집중해서 빈틈없이 추진하겠다.

Q : 끝으로 영덕군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 코로나 악재에서 벗어나자마자 찾아 온 고금리·고물가가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어 참 안타깝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위기와 좌절에도 항상 역경을 이겨내는 걸 스스로 증명해 왔다. 동충상잔의 비극을 극복하고 세계적 경제대국을 이룩했고, IMF 경제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또한 최단기간에 이겨냈다. 그런가닭에 이번 위기도 우리는 끝내 답을 찾아낼 것이다. 향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군민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적극적 행정과 능동적인 정책으로 작금의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를 지렛대 삼아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우리 군민이 행복한 영덕’을 반드시 이룩해 내겠다.

“그 과정에서 군민께서 보내주시는 지지와 응원을 신뢰와 정직으로 답하겠습니다.”

취재진이 만나 본, 김광열 영덕군수는 ‘참 선명하고 참 영민하다’는 인상을 주는 왕성한 추진력을 가진 분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인터뷰간 거침없는 하이킥 답변으로 응하면서도 이번 2023년 영덕대개 축제를 기존 강구항이 아닌 삼사해상공원으로 축제장소를 옮겨 시행 하는 뛰어난 해안과 리더십이 낳은 결과 엄청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구 손사래를 치면서 이번 축제의 대성공은 누가 뭐래도 축제위원회의 치밀한 노력덕택이라고 모든 공을 돌리는 그의 인품과 리더십을 보면서, 영덕군과 군민들은 참 멋진 군수를 만나 영덕군의 미래는 더욱 아름답고 희망이 차고 넘칠 것이라 기대감이 들게 했다. 특히, 인구증가책에 대해 내어놓은 해법은 취재진이 살펴 본 각 지자체의 해법보다 매우 실용적이고 앞서서 향후 많은 지자체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도 좋을 것으로 보여져 참으로 고무적이었다.

끝으로 취재진은 김광열 영덕군수이하 600여 공직자가 하나된 마음으로 2023년 5대 영덕군정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영덕군민들 모두가 신바람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기를 기원하며, 영덕군이 「세계속의 명품 관광해양도시」로 우뚝 자리매김하길 소망해 본다.



### 파주시, 이륜차 불법 개조·소음 합동단속 실시...15건 적발

번호판 위반,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 단속

파주시는 지난 10일 야간 20~22시에 금릉역 앞 중앙광장 인근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 파주경찰서와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위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이며, 단속 결과 ▲번호판 위반 5건 ▲안전기준 위반 6건 ▲불법튜닝 4건 등 총 15건이 적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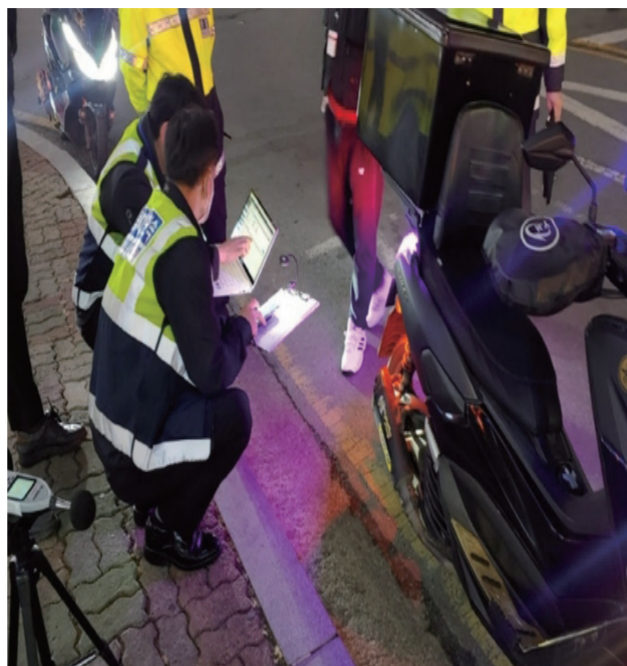
이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급가속 및 불필요한 경적 자제 등 소음 유발 행위를 계도했으며, 위반 사항이 발생한 이륜차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이륜차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

해 이륜차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연중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단속은 5월경 운정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조운욱 환경지도과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 불법 개조, 소음 민원에 적극 대처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 주말 반납 산불기동단속 나선 충북도 공무원들

대형산불발생 위험시기, 불법소각 집중 단속

충북도에서는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형산불 방지를 위하여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11개 시·군과 합동으로 주말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동단속과 병행하여 소각 관행 근절과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중점추진 계획으로 산림 인접지역의 독립가옥 및 전원주택 단지 등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동단속의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불 놓는 행위,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소각, 생활쓰레기 소각 등이

며 현장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만~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년 3월 16일 현재 전국적으로 268건의 산불로 593ha의 산불피해가 발생했으며, 도내에서는 10건(5.0ha)의 산불이 발생했다.

도내에 발생한 산불 10건 중 6건에 대하여는 가해자를 검거하고 4건에 대하여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법 소각 행위 18건을 적발하여 4,740천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산불발생 가해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합동으로 불법소각 합동 점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생활쓰레기, 농업부산물 등 모든 소각을 전면 금지(‘22.11월) 하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농업부산물 파쇄를 지원(계획 1.657ha/실적 1.446ha, 87%)하고 있다.

안창복 환경산림국장은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 자연현상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산림인접지역에서 농업부산물·생활쓰레기 등 소각을 하지 않는 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정화기자

### 경산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실시

경산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의 근절을 위하여 이동식 불법투기 감시용 CCTV 15대를 추가 설치하고, 오는 28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및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활동에 나선다.

특히 대학가, 원로 밀집 지역의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 투기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생활 불편 민원이 발생해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시청 자원순환과, 읍·동·새마을 부녀회 등 관련단체와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

용품 혼합배출 행위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적법 조치한다. 아울러 분리배출 활성화,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등 홍보활동도 펼친다.

이번 집중단속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듯 계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해 불법투기 자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철저한 분리배출 및 쓰레기 감량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송광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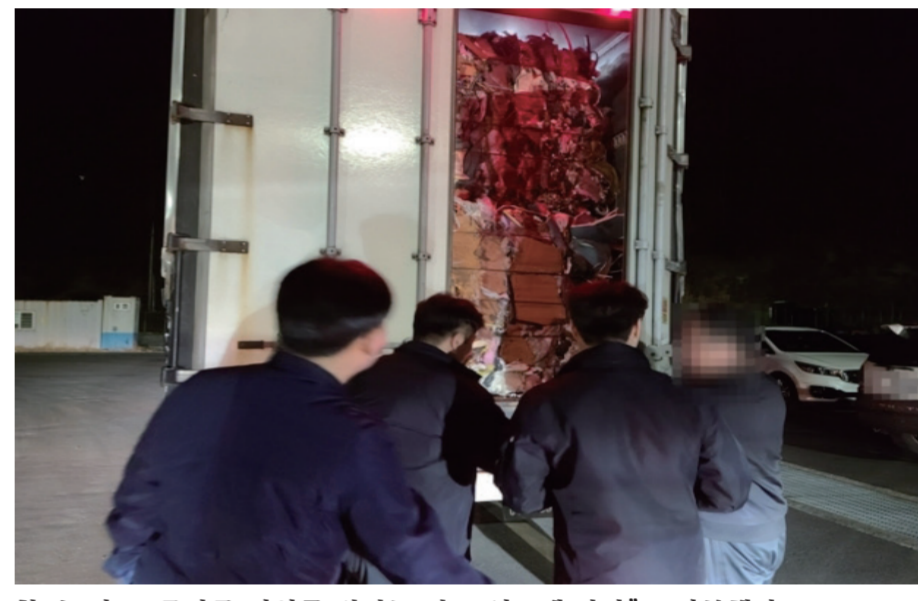
### 사천해경, “무사증 밀입국”단속 강화 나선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최근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하여 내륙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선 범죄 사전예방을 위해 특별 외사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이후 잠정 중단됐던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 제도는 작년 6월 1일부터 재개됐고,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불법체류자의 무단이탈 사건과 관련하여 사천해경은 자체 임검반을 편성해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과 화물선, 어선 등을 상대로 불시 임검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근무처 정보 일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며 단속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여객 선사, 수협 및 외국인 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과 외국인의 내륙 밀입국 시도 등 이탈 동향 정보를 공유해 수사 협조체계를 확대 구축할 방침이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도서가 많은 남해 특성상 밀입국 사각지대가 발생



할 수 있고, 무사증 밀입국 범죄는 점차 지능화·대범화 되어감에 따라 관련 외사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서부경남 해상을 통한 밀입국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밀입국 관련 범죄가 의심되거나 발견 시에는 해양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밀입국과 연관된 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신고포상금은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용준기자

### 최훈식 장수군수, 여름철 인명피해 우려 지역 현장점검

최훈식 군수가 17일 관내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장수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시 긴급대피가 요구되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14개소를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날 안전점검은 변암면 노단리 요천에 위치한 노단지구 하상 주차장과 시동강 지구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주민대피기준에 따른 대피 장소 및 대피 동선 점검을 실시했으며, 하상 주차장 차단시설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자의 사용방법 숙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름철 기상특보에 따른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 피해 우려 지역 관리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최훈식 군수는 이날 점검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



큼 갑작스러운 하천 수위 증가에 긴급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정기점검과 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자연재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곽승오기자

### 경남도, 반려동물 관련 불법·편법영업 뿌리 뽑는다

3월 20일 ~ 5월 12일, 반려동물 생산업, 판매업 등 8개 업종 집중점검 실시

경남도는 최근 불법·편법 영업, 동물 학대, 동물사체 유기 등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복지 향상과 강화된 '동물보호법' 계도 및 홍보를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했고, 이에 도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도 지속적으로 늘어 2018년 775개소에서 2023년에는 1,243개소로 4년간 약 61%(468개소)가 증가했다.

반려동물 관련영업장 현황(2023년 2월 말 기준)을 보면 △동물미용업 588개, △동물위탁관리업 277개소 △동물판매업 200개소로 순으로 가장 많으며 △동물생산업 104개소, △동물운송업 38개소, △동물전시업 25개소, △동물장모업 8개소, △동물수입업 5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경남도가 전년도 1,08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단속을 한 결과, 영업장 준수사항 위반 등 19건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무등록·무허가 영업장은 고발 조치했다. 또한, 영업자 필수

교육 미이수자 3개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반려동물 전 영업장(1,243개소)에 대해서 시군과 협업체가 3~5월과 7~8월에 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6월과 10월에는 농식품부, 검역본부와 함께 합동·기획점검을 통해 무허가·무등록, 편법영업 등 불법 영업 집중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이 2022년 4월 26일 전면 개정되어 올해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입·판매·장모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휴업·폐업 신고 및 직권 말소 조항 신설,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등록대상동물 등록신청업자 확대 △거래내역의 신고 신설, △과징금 부과 신설, △영업장 폐쇄 신설 등 반려동물 영업관련 사항이 강화된다.

또한 반려동물 영업자 주요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무등록·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칙조항 확대와 영업자 준



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는 등 강화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경남도 손영재 축산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높아져 가는 도민들의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맞춰 성숙한 반려동물 산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 안성시, 유원시설업(키즈카페) 안전실태 집중 점검 실시

아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대대적 합동점검에 나서

안성시는 지난 14일, 관내 유원시설업(키즈카페) 2개소에 대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및 유지관리 상태 점검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 ▲유기기구 확인검사 수검 여부 ▲유기기구별 안전사항 점검 분야를 점검해 어린이 안전보호에 앞장섰다.

또한 안전관리 현황 파악 뿐만 아니라 사업자와의 면담을 통해 보안사항과 주의사항에 대해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키즈카페 시설이 늘어나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늘고 있어 사전에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자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아이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 하기 위해 진행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키즈카페를 이용하며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제주시, 미신고 불법숙박업소 강력 대응 나서

제주시는 2월 1일 ~ 3월 15일(43일간) 기간 동안 미신고 불법숙박업소의 침입소에 대한 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 중점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건을 적발하고 이 중 8건은 형사고발, 나머지 4건은 행정지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숙박업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이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도민 제보 및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사이트 모니터링에 의한 것으로 적발된 미신고 불법영

업소는 단독주택 8곳, 아파트 1곳, 연립주택 1곳, 다가구주택 1곳, 근린생활시설 1곳이다.

적발된 업소 모두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업 행위를 해 왔으며, 일부는 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단기 숙박 서비스(객실내 청소, 침구류 세탁·교환, 수건·샤워용품 등 지급)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숙박업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진기자

# 경상남도, 불멍 대신 빚멍 때리러 오실래요?

### 2023년 경남산림박물관, 미디어아트 기획전'삶의 불빛'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은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상반기 경상남도 산림박물관 기획전시 '삶의 불빛-The Light of lif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영호남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며 산림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준비한 전시로, 현재 국내·외에서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정선휘 작가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산림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일상 속 자연의 모습을 담은 감성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정선휘 작가의 작품은 일반회화에 사용되는 일반 캔버스가 아닌 한지와 폴리카보네이트라는 합성수지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뒷면이 은은하게 투영되는 한지의 특징과 색의 밝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LED 조명기술을 활용하여 작품 속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진주성의 풍경을 주제로 한

정선휘 작가의 신작 "진주의 별"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오성운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경남수목원을 찾는 도민과 일반관람객들에게 양질의 산림문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아울러 전시작품을 통해 마음에 여유를 찾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시는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으로 386경남수목원 내 산림박물관 전시실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전시가 개최되는 경상남도산림박물관은 2001년 개관하여 현재까지 산림과 임업에 관한 역사적 자료 및 수집된 소장품을 상시 전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산림박물관 보완사업을 통해 전시실 환경개선 및 산림을 주제로 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장재현/기자



#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 추진

###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1개,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3개

삼척시 문화예술회관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2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약 1억5백여만 원 을 확보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작품성 및 대중성 등에서 검증된 민간예술단체의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 문예회관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올해 국비 포함 총사업비 1억 8천여만 원을 들여 안산시립국악단의 전통예술분야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김봉곤 훈장과 함께하는 'NEW 조선통신사'", 장신희 발레단의 무용분야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러브스토리:발레 역사를 빛낸 '사랑의별', 오늘 다시 빛나다", 극단 나는세상의 연극분야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여보 나도 할말있어", (주)산책 캠퍼니의 다원예술분야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홍지민과 함께하는 판타스틱-시즌2" 등 총 4개 작품을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그 중 첫 번째 공연인 안산시립국악단의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김봉곤 훈장과 함께하는 'NEW조선통신사'"가 오는 4월 14일(금) 저녁 7시 30분 삼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삼척시문화예술센터와 안산시립국악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90분 동안 안산시립국악단의 남도아리랑연주, 국악관현악과 비보이 트레블러 크루의 콜라보 공연, 전통연희단 '비상'의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 등이 진행된다.

또한, 김봉곤 훈장과 김도현, 김다



원 청학동 국악자매, 그리고 가수 이세온도 함께 출연하여 전통음악부터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유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윤승업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양수경의 '사랑하세요'", "K-DRAMA 클래식과 만나다",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 열이섭다" 등 총 3개 작품이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선정되어 공연을 펼쳤다.

이원민/기자

# 나주천연염색재단, 특별초대전 '나무가 되다' 개최

### 27일까지 조선대 미술대학 노은희 명예교수 작품 90여점 전시

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은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오는 27일까지 특별초대전을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초대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노은희 명예교수로 '나무가 되다'를 주제로 한 작품 90여점을 선보인다.

작품은 한지, 대나무, 삼나무, 폐기 섬유, 실, 커피 필터 등을 소재로 나무를 다채롭게 표현한다.

노 작가는 나무가 물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동화 작용을 하듯 나무가지와 한지와 같은 자연에서 얻어지는 재료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섬유 등에 예술적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바느질, 뜨개질, 붙이기, 겹치기, 줌치기법, 주름주기, 재봉질 등 다양한 기법과 색상이 조화를 이루는가 하면 때로는 대비돼 편안함, 긴장감, 생명감, 예술적 환희 등 다양한 감정을 작품 속에서 느껴볼 수 있다.

노 작가는 "나무는 땅의 물과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에너지를 만들어 생명을 영위하면서 산소를 내뿜고 성장하는 것으로 자연과 생명을 상징하는 존재"라며 작품 속 의미를 부여했다.

임경렬 한국천연염색박물관장은 "노 작가의 이번 작품전은 예술로 약속하는 봄 기운을 느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작품 초대전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문화 향유 영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은희 작가는 홍익대학교에서 미술비평전공 미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략회 초대 디자이너, 한국미술대전 초대작가, 광주 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 중이다.

김영안/기자



# 수원시, '2023 힐링폴링 수원화성' 축제 총감독 위촉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4개 가을축제 총감독 4명에게 위촉장 수여

수원시가 '2023 힐링폴링 수원화성' 4개 가을 축제의 총감독을 위촉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7일 집무실에서 제60회 수원화성문화제 조형제 총감독,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오제열 총감독,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윤기철 총감독,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 이원준 기획감독 등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2023 힐링폴링 수원화성'은 ▲제 60회 수원화성문화제(10월 7~9일)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9월 23일~10월 14일)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10월 8~9일)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9월 16일~10월 15일) 등 가을에 수원화성 일원에서 열리는 4개 축제를 이르는 말이다.

수원화성문화제 조형제 총감독(2022) 등을 지냈고,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오제열 총감독은 한산모시문화제 총감독(2017~2022) 등으로 활동했다.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윤기철 총감독은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기



획운영단 예술감독(2022) 등으로 활동했고, 수원화성미디어아트쇼 이원준 총감독은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 운영감독(2021~2022), 인천 개항장 미디어아트 총괄제작·연출(2021) 등을 지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풍부한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축제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뛰어난 분들을 총감독으로 위촉하게 돼 기쁘다"며 "4개 축제가 제각각의 특색을 살려 수

조혜영/기자

# (재)광명문화재단, 사업설명회 [재단사용법 ver.1] 열어

###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문화적 노력을 다할 것



(재)광명문화재단이 개최한 2023년 (재)광명문화재단 사업설명회 [재단사용법 ver.1]가 오는 17일 광명시민회관 리허설룸에서 시민과 지역예술인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설명회는 어연선 대표이사의 2023년 재단의 주요 정책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재단 청년 홍보단 [아리] 2기 참여자 오재운, 이민서님의 재단 사업 소개, 그리고 부서 팀장들의 사업 참여방법과 공모지원방법,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어연선 대표이사는 이날 재단의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노력이 절실할 때이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문화적 노력과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로 광명문화재단은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

회복 [지역의 이슈를 시민과 예술가와 함께 문화예술적으로 해결] ▲일상이 문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누리고 즐기는 문화예술] ▲광명스타일 [광명 고유의 지역문화브랜드 개발] ▲탄소중립실천 [탄소중립 문화행동 실천] ▲문화자치 [시민이 주체가 되는 광명 문화도시 실현] 등 2023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연과 달리 광명 청년 예술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창작 공간 지원 사업', '청년예술가 교류' 등 활발한 의견 제안으로 눈길을 끌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어서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다."

또한 대관 신청이나 시민 할인혜택 등 평소 궁금하고 어려웠던 부분들을 알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윤용민/기자

# 경기창작센터, 2023년 창의예술학교 운영 예술인 모집

###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연계된 교육콘텐츠를 개발 실현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창의예술학교" 운영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경기창작센터는 2009년 개관 이래 지속적으로 작가의 창작활동과 연계된 양질의 예술교육, "창의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 복합문화공간 "경기창작캠퍼스" 개관을 앞둔 경기창작센터는 2022~23년 리모델링 기간 동안 비입주형 작가를 모집하여 창의예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콘텐츠 강화에 집중한다. 2022년에는 다장르 작가 모집,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 메타버스 전시, 지역 유관기관 협업, 기술+예술 또는 작가 간의 장르 결합 프로그램 등을 시도하며,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예술 활동 안정성 유지, 교육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2023년에는 '섬'을 주제로 하는 기획 예술교육 작가 공모를 통해, 복합문화공간 개관 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고도화한다. 비입주형 예술인들이 창작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되, 프로그램 주제를 '섬'으로 제시한 점이 2022년 공모와 크게 다른 점이다. '섬'의 장소적 특성뿐만 아니라 물리적, 사회적, 개념적 특성으로 확장하여 사유하고 이를 개념화한 교육프로그램을 지향하며, 대부분 '섬'에 위치한 경기창작센터의 장소적 특성을 부각한다. 지역 특색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 또는 경기도민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보존의식, 자긍심 고취,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장하고자 한

다.

2023년 "창의예술학교"를 함께 꾸려갈 예술인 모집은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이다. 다양한 장르의 현업 예술인이 본인의 창작활동에 기반하여 '섬'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으며, 총 4명을 모집한다.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섬이라는 매력적 주제를 차별화된 예술교육콘텐츠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유를 통해 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혜영/기자

[독암칼럼]

###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

다소 지난 감이 있지만 지난 15일은 '상공인의 날'이었다. 3·15 의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상공인의 날이 밀려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상공의 날 5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했다.

필자는 해마다 이날이면 상인 일기를 인용하여 상공인들의 애환과 직업적 사명감을 표현한 바 있다. 당초 상공인의 날은 1973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년 3월 셋째 수요일로 정한 날이 오늘까지 이어진 것이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을 모두 합쳐 상공의 날로 통합된 것이다. 50주년이라는 각별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를 빛낸 상공인 220여 명에게 정부 표창을 수여하고 일반인을 위한 50자 백일장이나 빌딩 숲 음악회 등을 개최했다. 독자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최근 상공회의소가 공인한 3E란 신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ESG·엑스포(EXPO)를 말한다.

부산엑스포가 인류 문제에 대해 전 세계인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하지만 상공인의 날 국가가 진행하는 일회성 행사보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도록 재래식 시장 한쪽에서 봄나물을 파는 노점상도 상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규모나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상을 주고 받는 행사를 보면서 정작 땀을 흘리고 이득을 파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상공인에 해당되는데 어찌 상징적인 인물과 국민세금으로 걷은 예산으로 돈 잔치를 하는지도 의문이다.

그럼 상공인의 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되짚어보자. 어제 독암 칼럼을 통해 가뭄과 현상의 미래에서도 어떨렀듯 하루에도 사라지는 직종이 수십 가지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어느 계층이 가장 큰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며 거침없는 파도에 부딪혔는가.

필자는 망설임 없이 상공인들이라고 말한다. 당초 1차 산업인 농업, 어업, 광업, 임업은 자연을 배경으로 열심히만 하면 소정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직종이었다.

물론 자연재해로부터 간혹 곤란을 겪기도 하지만 그래도 밭을 이나 먹을 수 있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지 않았던가.

일명 방물장수라는 보따리 상인들이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안방 마님을 상대로 유통업에 종사하던 과거가 있었다. 말이 보부상이지 상인들이 평소 장사를 하며 돌아다니면 온갖 정보를 다 듣게 되고 이런 정보들이 물건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구전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니 이만한 정보원이 어디 있을까.

장신구, 미용에 필요한 각종 소품들, 건강에 좋다는 만병통치약까지 상공인의 날을 만들어낸 선조들의 흔적은 언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제조로부터 출발한다.

그 다음 과정이 유통이고 유통에는 홍보가 필요했으며 시장마다 처음 팔면 '마수' 파는 과정에서 내키면 더 주는 것이 '덤'이고, 막판에 대충 팔고 판을 접으려면 '떨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시대만 변했지 편의점 가서 1+1, 2+1 등이 덤이나 마찬가지로. 특히 대형마트에서 영업 마감시간이 되면 생선이나 기타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농산품들의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진다. 물론 이것을 보고 떨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는 사람이 싸게 사려고만 욕심내면 파는 사람은 당연히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농·축·수산물, 공산품이든 만든 사람을 제조라고 한다면 파는 사람은 유통이라고 한다.

상공인이 제 아무리 정성껏 만들어도 유통과정이 허술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데 산지 배춧값이 1,000원도 안 될 때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에 가보면 5,000원으로 뛰여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고 어부가 예뻐 잡은 물고기를 경매시장에서 가격을 후려친다면 기름값도 못 건진다며 조업을 포기할 것이다.

유통은 나름 소정의 경로를 거치면서 안정적인 수매를 돕는 순기능이 있는데 간혹 지자체에서 선심성 생색을 내며 로컬푸드라는 영어로 포장한 농산물 직거래가 그러하다.

유통 과정의 기능과 역할을 거품으로 내몰아 그 가치를 무산시킬 때 얼핏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위하는 것 같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기존의 틀은 아예 무시하는 처사다.

이 세상에 모든 영역에는 고유 역할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타 넘어 나댠다면 기존의 상인들은 폭리를 취하는 악덕업자로 치부된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창업하고 폐업하는 자영업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는 책상머리에 앉아 잔머리만 굴리며 표를 얻기 위한 생색작업에 몰두할 게 아니라 상인들의 영역과 시장은 각자의 밥그릇으로 보존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4일 인천 현대시장에서 발생한 방화로 인해 점포 55곳이 잿더미로 변했다.

뉴스를 보면 사람들은 스치는 한 장면일지 모르나 당사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낭패다. 돈이 많았다면 좌판을 벌이고 "사세요"라며 고객들의 구매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상공인의 날, 어려운 상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모금운동이나 정부 차원의 긴급 재난지역선포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더 공감대를 얻지 않을까.

옛말에 해도 되는 3대 거짓말이 있는데,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것과 노인이 늙으면 빨리 죽어라야 하는 것과 장사치가 밀치고 판다는 것이다. 폭리를 취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싸게 사려는 욕심은 파는 사람들의 이익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 간혹 점포정리, 공장도가격, 스크래치 가구 등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유통과정도 있지만 누군가의 손해가 내게는 이득으로 돌아오는 것이기에 그리 달갑게만 여길 일은 아니다.

거레나 흥정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인류가 존재하는 곳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장이 서게 마련이고 분야에 따른 유통과정이 있다.

무조건 싸게만 사려는 구매자의 노력과 어떻게든 이익을 남기려는 판매자의 영업 전략이 충돌한다면 사회는 난장판이 될 것이고 어느 정도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룰이 존중된다면 시장판이 되는 것이다.

상공인의 날 50주년을 맞이하여 상인 일기의 한 대목을 읊조려 본다. "해가 없는 날에도 점포 문은 열려 있어야 하고 별이 없는 날에도 장부엔 매상이 있어야 한다. 강물이라도 잡고 달빛이라도 배여 팔아야 한다. 일이 없으면 별이라도 세고 구구단이라도 외워야 한다."라고.

[박근중 칼럼]

###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감 있게 승부 걸길

세계 각국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첨단 반도체 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이 불꽃 튀는 전쟁을 방불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으로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 첨단산업 육성 청사진을 제시하고 총력전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 및 '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으로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 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Cluster | 집적단지),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구(投資特區), ▷통상역량 강화 등의 세부 육성전략을 세우고, ▷반도체(340조 원), ▷디스플레이(62조 원), ▷이차전지(39조 원), ▷바이오(13조 원), ▷미래차(95조 원), ▷로봇(1조 7,000억 원) 등 6대 첨단산업에 2026년까지 550조 원 규모의 민간 주도 투자를 유도한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파격 지원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승부수를 띄워 핵심 인재 양성과 투자 유인 강화를 통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무억수지가 갈수록 악화일로(惡化一途)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키우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반기며 환영한다.

다음 '산업벨트 조성계획'으로 ▷수도권(1개 단지)에서는 용인(710만㎡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대전·충청권(4개 단지)에서는 대전(530만㎡ | 나노·반도체·항공우주), 천안(417만㎡ | 모빌리티·반도체), 오송(99만㎡ | 철도), 홍성(236만㎡ | 수소·미래차·이차전지), ▷광주·호남권(4개 단지)에서는 광주(338만㎡ | 미래차), 고흥(173만㎡ | 우주산업), 익산(207만㎡ | 푸드테크), 완주(165만㎡ | 수소저장·활용산업 특화), ▷경남권(1개 단지)에서는 창원(339만㎡ | 방위·원자력산업), ▷대구·경북권(4개 단지)에서는 대구(329만㎡ | 미래차·북산업), 안동(132만㎡ | 바이오의약), 경주(150만㎡ | 소형모듈 원전), 울진(158만㎡ | 수소생산), ▷강원권(1개 단지)에서는 강릉(93만㎡ | 천연물 바이오) 등 전국 6개 권역 15개 지역 4,076만㎡(약 1,200만 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 조성하여 기업 투자를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핵심은 경기 용인의 710만㎡(215만 평 | 서울 여의도 넓이

의 2.4배) 부지에 조성되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다. 단일 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2042년까지 향후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생산라인 5개를 건설하고, 정부는 최대 150개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팹리스(Fabless | 반도체 설계업체) 등을 유치한다. 국내에 화성-기흥-평택-용인을 연결하고, 여기에 SK하이닉스의 이전 생산단지, 팹리스 밸리인 판교까지 더해지게 되면 완벽한 '반도체 삼각편대'를 구축하게 된다. 그야말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전망이다. 또한 지역적인 연결을 넘어 산업적으로도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소부장-팹리스 등 반도체 산업 전 분야의 밸류체인(Value chain | 가치사슬)을 하나로 묶어 연결한다는 기대감이 크다.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무려 5,957억 달러(약 780조 6,053억 원)에 달하는 가히 천문학적 규모다. 이 중에서 메모리반도체(Memory Semiconductor | 정보저장)와 시스템반도체(System Semiconductor | 정보처리)의 비중은 메모리반도체가 1,440억 달러로 24%인데 반해 시스템반도체는 3,605억 달러로 61%의 비중으로 무려 2.5배 정도 크다. 문제는 한국이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인 '메모리반도체 강국'이지만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의 글로벌 점유율은 고작 3% 수준으로 경쟁력이 매우 약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 1위를 넘어 파운드리(Foundry | 반도체 위탁생산)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반도체 1위까지를 목표로 전력, 차량용,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을 타깃 삼아 2030년까지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에 3조 2,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로 직간접 생산 유발 효과 700조 원과 고용 유발 효과 160만 명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번 투자 결정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자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전 제시다. 세계 반도체 기업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려는 미국과 반도체 산업 고도화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국에 과감히 맞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산실이자 총본산 역할을 맡겠다는 역동적인 시도다. 미·중 패권 경쟁에 휘말려 한국의 산업전략이 심하게 위협받는 와중에 나왔다든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미국이 막대한 보조금과 세계 최대의 미끼와 대중국 제재 등으로 한국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공장을 블랙홀(Black hole)처럼 빨아들이면서 국내 첨단 제조업의 공동화(空洞化) 우려가 더욱 커진 터다. 관건은 무엇보다 실행이다. 토지 조성부터 인재 공급까지 정부가 책임 지기로 한 만큼 차질 없이 실행으로 옮겨져야 한다.

더욱 중요한 건 속도와 타이밍이다. 오는 7월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시행한다. 모든 인허가절차를 60일 안에 끝낸다는 '인허가 타임아웃제'와 관련, 규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더드 준칙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그레야만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경쟁국보다 앞설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 약속 이행을 압박할 수 있고, 정부의 령(令)도 제대로 선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0년 0%대로 추락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지금의 실행 여부에 달렸다. 첨단산업 육성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지, R&D(연구개발), 인력, 세계 지원 등을 빈틈없이 적기에 실행해 나가야만 한다. 규제 완화와 교육, 주택,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도 긴요하긴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기업 모두 다 임중한 시기임을 인식·명찰하고 혁신으로 재무장한 '콜럼버스의 달걀(Egg of Columbus)'과 같은 발상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호응하고 답할 차례다. 정부는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로 압축 도약과 돌격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첨단 패키징 거점 구축에 국가 진운(進運)의 명운(命運)을 걸고 국가 역량(力量)을 총집주(集注)하여 매진(邁進)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반도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수도권 대학 정원 문제부터 서둘러 풀어야 한다. 최근 야당이 전환적(轉向的) 자세로 돌아서면서 대기업 등의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 |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3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간 이견이 있어 합의에 시간이 걸렸지만 지난 2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수용되었다. 국회는 서둘러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신속히 통과시켜야만 한다.

고향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부!

# 나 주 시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세액공제, 담례품

**지역생산자**  
농촌소득증대

**나주시**  
주민복지증진사업

# 이사소장은 기부심

한국여성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사랑이여  
생애기부금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 경상북도로 기부해주세요!



풍성한 답례품은 **덤**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지역** 개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모든 시도 / 시군에 기부

**기부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까지

- 기부혜택**
- ①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분은 16.5% 세액공제
  - ② 답례품 증정 • 기부액의 30% 범위 내 선택

### 기부방법 ①



고향사랑e음 시스템 접속

[www.ilovegohyang.go.kr](http://www.ilovegohyang.go.kr)



가입

준비물  
PC, 휴대폰



기부하기



위택스 결제

계좌이체  
또는 카드



답례품 선택

※ 위택스 사전가입 필수

### 기부방법 ②

NH농협 방문 신청



농협 방문 신청

준비물  
신분증



신청서 작성



현장 결제

계좌이체  
또는 현금



답례품 선택

※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모여진 기부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 생계지원과 청소년 육성 등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소중한 재원으로 쓰여집니다.

문의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 054-880-2836, 2838